40년만에 다시 본 조선



깐델라리아 로드리게스 에르난데스

40년만에
다시 본 조선

깐델라리아 로드리게스 에르난데스

조선 평양
1 9 9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꾸바녀성법률가 깐델라리아
로드리게스 에르난데스와 친히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조선인민군창건 60돐경축열병식의 주석단에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책을 내면서

나는 작가도 기자도 아니고 문필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저 평범한 법률가에 불과한 로인으로서 조선에서 보고 듣고 느낀바를 그대로 쓰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충동이 나로 하여금 붓을 들게 하였다.

한생을 변호사로 살아온 나는 직업이 직업이니만치 불필요한 수식사나 미사려구를 늘어놓고싶지도 않다.

다만 나의 심장을 울려주고 나의 온 몸을 강하게 자극한 그 모든 사실을 나의 주견에 따라 하나의 꾸밈도 보탬도 없이 사실그대로 옮겨놓으려고 할뿐이다.

이것이 지금 사회보장을 받으면서 꾸바전국법률가동맹 아바나시변호사협회 위원장으로 사업하고있는 나의 의무이고 체질화된 습벽이라고 생각한다.

박사 깐델라리아 로드리게스 에르난데스

1993년 12월

차 례

1. 하늘에서 받은 생일상

나는 뜻밖에도 조선으로 오라는 초청을 받게 되였다.

사회보장이나 받으면서 평범한 인간으로 살고있는 내가 조선으로 다시 가게 되다니…

그것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을 방문하여 별로 한일도 없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조선을 방문하도록 친히 초청하게 하시였다는것이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꿈이라면 제발 깨여나지 말았으면…)

나는 친구인 마리아 엘레나에게 달려가 나의 살을 꼬집어보라고 하였다. 아픈것을 보니 꿈은 아니였다.

며칠후 나는 의혹과 회의, 불안과 초조가 뒤섞인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나는 생각에 잠겼다.

40여년전만 해도 피바다, 불바다에 잠겨 몸부림치던 조선이 아니였던가!

지금도 나의 눈앞에 생생한것은 페허의 증견자인양 무수한 폭탄구뎅이들과 숯처럼 꺼멓게 되여버린 집기둥들, 한줌의 흙을 움켜잡아도 피가 흐르고 파편이 손

끝을 찌르던 그 땅, 그 거리들이였다.

그런 조선이 력사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40여년이란 짧은 기간에 제국주의아성과 맞서 세기의 하늘가에 거연히 솟아오를수 있단말인가.

사회주의성새로, 보루로 생각했던 쏘련이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없어지고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이 좌절이라는 고배를 마시며 자본의 진흙탕에 깊숙이 빠져들어간 이때 조선은 과연 무슨 힘이 있기에 세계앞에, 력사앞에, 인류앞에 떳떳이 제 목소리로 말하며 힘차게 나아가고있는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궁싯거리며 대서양을 횡단한 나는 모스크바에 도착하자 뜻밖의 환대를 받고 더욱 어리둥절해졌다.

로씨야주재 조선대사동지가 나를 찾아와 함께 생일을 쇠자고 하는것이였다.

게다가 평양으로 오는 도중 비행기안에서 조선안내원처녀의 생일축하까지 받고보니 어렴풋이 짐작이 되는바가 없지 않았다.

그후 나는 평양에 도착하여 내내 흥분된 마음, 놀란 눈으로 주체사상탑과 5월1일경기장, 개선문과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돌아보고나서 다시금 생일상을 받아안게 되였다.

이날 저녁 내가 숙소에 돌아오니 대외문화련락위원

회 위원장이 찾아와 생일상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식당에 들어서자 그는 다정히 나의 손을 잡으며 훌륭한 생일축하음식이 있는 푸짐한 생일상으로 나를 안내하였다.

정말 꿈만 같았다.

내가 세번씩이나 생일을 쇠다니…!?

나의 평생에서 있어본적이 없는 일이였다.

나를 따뜻이 안아주는 조선사람들의 그 애틋한 사랑과 친절성에서 나는 다심한 혈육의 정을 느끼였다.

조선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에서 피여나는 그 정은 다름아닌 내 마음속의 하늘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심어주신 뜨거운 사랑이였다.

2. 나무다리는 어디로 갔나

우리들은 농촌에서, 도시에서, 공장에서 모여든다
톱과 마치와 낫
손에손에 든 쟁기는 투쟁의 무기
하여 소리합쳐 생활을 노래하며
행진하는 군대마냥 지구를 점령하리

나는 비행기안에서 꾸바시인 레히노 뻬뜨로노가 지은 이 시의 구절구절을 다시금 되새겨보았다.

톱과 마치와 낫!

그것은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 건설도 하며 재건하는 투쟁의 무기이다.

하지만 현대 과학과 기술의 안받침없이 수공업적수단만을 가지고 천지개벽을 이룩하기는 어렵다.

조선인민이 아무리 영웅적투쟁을 벌린다고 하여도 페허로 되였던 조선을 맨주먹으로야, 기껏해서 톱과 마치와 같은 수공업적수단만을 가지고야 어떻게 일떠세운단말인가?

나는 조선을 방문하였던 나의 동료들이 가지고 온 도서들과 잡지를 통하여 조선의 발전모습에 대하여 어

느정도 알수 있었다.

그러나 1963년도 나의 조선방문을 돌이켜보면 조선은 전후 재더미에서 갓 먼지를 털고 단번에 천리를 달린다는 천리마의 기세로 달리고있었으나 그때까지만 하여도 그리 발전하지는 못하였었다.

그런데 비행기가 순안비행장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전혀 새로운 조선의 모습을 보게 되였다.

항공역사로부터 쭉 뻗은 대통로를 따라 즐비하게 일떠선 고층살림집들과 가로수들, 조화롭게 펼쳐진 록지들…

쾌속으로 달리는 승용차는 어느새 시내 중심부에 들어섰다.

나는 조선의 천리마동상이 보고싶어 게사니처럼 목을 빼들었다.

1963년 조선방문시에 받은 천리마를 형상한 석고상을 아직까지 나의 집 책상우에 놓고 그 정신을 따라배우고있는 나로서는 그 실물이 못내 그리웠던것이다.

하지만 천리마동상대신 웅장화려한 《대문》이 두팔을 벌리듯 나를 반겨맞아주는것이였다.

곱살하게 생긴 녀통역원동무가 개선문이라고 귀띔해주었다.

나는 저도모르게 《개선문》하고 되뇌여보았다.

처음부터 다심한 친동기의 정으로 살뜰히 대해주던

녀성간부가 개선문에 대하여 설명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로부터 눈보라만리, 혈전만리를 헤치고 넘어 광복의 새 봄을 안고 개선하신 1945년까지의 빛나는 투쟁업적을 천세만세 길이 전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라는것이였다.

나는 그제서야 금문자로 새겨진 《1925—1945》라는 수자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나의 가슴에 인찍혀지는 것을 느꼈다.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그 혁명정신이 이 개선문에 비껴있구나…)

내가 흥분된 어조로 이 생각을 말했더니 녀성일군은 맞장구를 치며 그것이 바로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백두의 혁명정신이라고 하면서 우리 인민은 지금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의미심장한 뜻이 담긴 명제이고 구호였다.

나는 숙소에 도착하여 새라새로운 기분에 덧쌓이며 려장을 풀고 방문일정을 토의하였다.

그후 나는 여러곳을 참관하고나서 그렇게도 그리워 마지 않는 조선의 국경도시 신의주로 향했다.

신의주! 꿈결에도 잊을수 없는 고장이였다.

전쟁시기 나에게 잊을수 없는 추억을 남긴 나무다리도 거닐고싶었고 폭격에 허물어진 내가 들었던 숙소도

보고싶었다.

나는 조선의 현실을 더 알고싶을뿐아니라 내가 1951년 5월 17일 신의주를 떠나 평양으로 오던 그 로정을 다시 밟고싶어 일반렬차로 갈것을 희망하였다.

동행자들도 쾌히 승낙하여 우리는 일반좌석에 자리를 잡고 즐거운 려행을 시작하였다.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천부위원장도 동행하였다.

우리는 려행하면서 꾸바와 조선의 련대성에 대하여, 공동의 원쑤와 맞서 견결히 투쟁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우리 두 나라 인민의 결의가 확고부동한데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때 조선의 한 동지가 마치 오랜 친구라도 만난듯이 나를 보고 몹시 반가와하며 우리의 이야기에 끼여들었다.

그는 꾸바와 조선은 지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있으나 마음만은 한치의 간격도 없는 형제나라이고 반제반미투쟁의 전초선에 선 혁명전우이라고 열정에 넘쳐 말하는것이였다.

조선의 마가을날씨는 남방사람인 나에게 있어서는 찬 일기였으나 몸과 마음은 오히려 더 따스한감을 느꼈다.

나의 흥떠지는 마음인양 렬차는 기적소리 울리며 경쾌히 달리였다.

차창밖으로 흘러지나가는 모든것이 나의 마음을 휘여잡고 연신 혀를 차게 하였다.

바둑판처럼 규모있게 펼쳐진 넓은 벌, 아담하고 깨끗한 농촌문화주택들, 공장들, 꼬리를 물고 오고가는 자동차, 뜨락또르들…

40여년전에 받았던 인상과 기억은 가뭇없이 사라지는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신의주시를 가까이 할수록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넘어오던 그 나무다리와 하루밤 휴식한 그 《려관》만은 꼭 찾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말을 들은 통역원도, 천선생도 웃음으로 도리질하며 절대로 찾지 못할것이라고 하였다.

(아니, 나는 찾을수 있다.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긴곳을 찾을수 없다는건 말이 안된다. 나는 내가 들었던 숙소도 꼭 찾아낼테다.)

어느덧 나의 머리속에는 4 0여년전 그 나날이 영화화면처럼 되새겨졌다.

나는 그때 국제민주녀맹조사단의 한사람으로서 조선전쟁에서 미제가 감행한 만행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의주에 첫발을 들여놓았던것이다.

우리는 한밤중에 나무가지와 나무잎으로 위장된 거루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 나무다리에 들어섰다.

금방 떨어져 잘못될것만 같은 나무다리는 너무도 위

험천만해보였다.

간난신고하며 다리를 건는 우리는 조선녀성들의 따뜻한 마중을 받고서야 안도의 숨을 몰아쉴수 있었다.

몇시간전부터 줄곧 우리를 기다리던 조선녀성들은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안겨주고 뜨겁게 껴안아주었다.

감격의 눈물이 그들의 두볼을 적시였다.

울면서 부여안고 그러다가는 뜯어보듯 다시 쳐다보는 그들의 순박하고 아릿다운 입술에서는 연신 인사말이 흘러나왔다.

나도 그들을 힘껏 껴안고 눈물을 금치 못했다.

그때가 1951년 5월 보름달이 환히 비치는 어느날의 한밤중이였다.

이슥하여 우리가 큰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나의 옆에 앉은 한 조선녀성은 나의 손을 잡아 자기 가슴에 꼭 가져다대고 자장가마냥 부드럽고 유연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감정은 벌써 두 심장을 하나로 이어주었다.

우리는 이렇게 되여 신의주에서 하루밤을 묵게 되였다.

아침에 일어나 숙소를 돌아보니 이곳은 려관이 아니라 폭격에 다 무너져버리고 한쪽 귀퉁이만 남은 엉성한 방아닌 《잠자리》였다.

미제날강도들은 1950년 11월 8일 100대의 비행기로 신의주시를 폭격하여 완전히 재더미로 만들었다.

2,100개의 공공건물과 6,800개의 일반건물이 파괴되고 5천명의 주민들이 희생되였다.

17개의 인민학교중 16개가 불타고 19개의 중학교중 12개가 파괴되였다.

국제적십자협약에 따라 지붕에 적십자표식을 한 2개의 병원이 소이탄에 맞아 재더미로 되였으며 또 다른 한 병원에 있던 26명의 환자들과 장보러왔던 2,500명의 일반주민들이 무리로 쓰러졌다.

이 사실을 목격하며 나는 이것이 전쟁터냐 아니면 인간도살장이냐고 자문하여 미제를 저주하였다.

얼마후 우리 일행이 자동차를 타고 신의주를 떠나 평양으로 오고있는데 갑자기 수십대의 비행기가 달려들어 기총사격을 퍼부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어찌할바를 몰랐다.

그때 들려오던 《항공!》이란 말이 마치 나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선고처럼 울려왔다.

곁에 있던 조선동지들이 우리를 밀치며 엎디라고 하는 순간 비발치듯 총탄이 쏟아지며 우리 주위를 스쳐지나갔다.

가슴이 섬찍해졌다.

조국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나의 가족들도 이제는 다

봤구나 하는 생각이 나의 머리속을 번개처럼 달리며 공포를 자아냈다.

함께 온 동무들도 이제는 가정도, 자식도 영영 볼수 없게 되였다고 눈물을 흘리며 공포에 떨고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오늘까지도 그때 웨치던 《항공》이란 소리가 《죽음》의 대명사처럼 뇌수에 인박혀 잊혀지지 않는것이다….

별안간 렬차가 속도를 늦추며 울리는 기적소리를 통해 나는 생각에서 깨여났다.

어느덧 렬차는 서서히 신의주역홈으로 들어서고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시내에 첫발을 내디디는 순간 나는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이게 과연 신의주시란 말인가！？)

나는 다른 도시에 온것만 같아 두리번거렸다.

넓은 대통로들, 고층건물들과 기념비들, 화려한 식당들… 어디를 둘러봐도 나의 첫 인상에 깊이 새겨진 신의주시의 모습이라고는 꼬물만치도 찾아볼수 없었다.

나는 마중나온 도행정경제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에게 내가 하루밤을 지낸 《숙소》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하였

다.

그는 쾌히 받아들이며 앞장섰다.

우리는 고층건물이 늘어선 대통로를 따라 한참동안 달려 어느한 건물앞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그때의 바로 그 건물이라고 나에게 말하는 것이였다.

(이렇게 변하다니… 정말 모를 일이다.)

나는 그 숙소가 아니라고 우기며 그때 하루밤을 묵은 《숙소》의 모습을 자세히 말해주었다.

그러자 도행정경제위원회 일군은 웃으면서 그때의 원형창문 4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허물어진 담벽을 다시 쌓고 터전을 넓혀 이렇게 크게 지었는데 지금은 아동도서관으로 리용한다는것이였다.

나는 나를 《속인다》고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나무다리로 가자고 하였다.

그 다리만은 원상대로 복구되여있으리라는 예감이 앞섰다.

얼마후 우리를 태운 차가 넓고 시원한 대통로같은 콩크리트다리 앞에 와 멎었다.

오고가는 말은 없어서도 동행자들의 눈빛에서 나는 여기가 내가 호언장담하던 바로 그곳이라는것을 대뜸 알아차릴수 있었다.

지형도 어렴풋이 낯이 익었다.

(그렇다면 그 나무다리는 어디로 갔나…！？)

내곁으로 다가온 녀성일군이 롱조가 섞인 말로 이런 것을 두고 조선에서는 《최령감의 평양구경》온 격이라고 말한다고 하였다.

그 말에 모두들 크게 웃었다.

나도 이미 통역원한테 그 내용을 들은터여서 웃지 않을수 없었다.

복구건설이 한창이던 때에 평양을 한번 다녀온적이 있는 시골의 최령감이 10년후 로친네를 척 데리고 평양사는 아들네집에 나들이를 떠났는데 제혼자 거리와 아빠트를 다 찾을수 있다고 으시대다가 망신당하는 해학적이며 유모아가 담긴 노래였다.

나는 말문이 막힌 최령감의 난처해진 모습을 그려보며 웃음이 절로 나오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나의 머리속에는 굉장한 대형기계들이 맞물려 돌아가던 대안중기계공장과 날바다를 가로질러 뻗어나간 서해갑문, 현대적건물들과 20, 30, 40층짜리 살림집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번개처럼 떠올랐다.

어디를 보나 조선은 50년대의 상처도, 60년대의 흔적도 찾아볼수 없다.

참으로 조선은 세계 상상봉에 높이 올라선 장쾌한 새 모습이다.

나는 흥분에 넘치고 격동에 찬 목소리로 동행자들에

게, 아니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이렇게 웨치였다.

《당신들은 복구했다고 하는데 그 표현은 정확치 않다.

이것은 복구가 아니라 완전히 천지개벽이다.

조선에 창조의 노래가 차넘치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세련되고 현명한 령도가 있고 그것을 받든 조선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이 있었기때문이라고 확신한다.》

3. 떠날수 없는 마음

나는 소박한 조선의 한 농가에 이르렀다.

벼짚으로 이영을 인 세칸집, 맞은켠에는 외양간과 헛간이 있다.

일제가 강점하였던 어둡던 그 시절에 조선사람들은 대개 이런 수수한 집에서 살았다고 한다.

추녀낮은 이 집이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고 어린시절을 보내신 유서깊은 집이다.

나는 숭엄한 마음을 안고 자그마한 마당에 들어섰다. 방안에는 가난한 살림살이를 엿볼수 있게 하는 소박한 가장집물들이 놓여있고 헛간에는 여러가지 농기구가 있었다.

조선에서는 이 성스러운 집을 《만경대고향집》이라고 부르고있으며 인민들모두는 이곳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고있다.

내가 만경대에 갔을 때는 마가을이였지만 사람들은 쉬임없이 찾아오고있었다.

붉은 넥타이를 맨 어린 학생들도 질서있게 줄을 서서 별빛같은 눈동자를 빛내이며 고향집마당을 꽉 채우고있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모습이였다.

나에게 만경대고향집에 깃든 여러가지 감동적인 사연을 이야기해주던 어여쁜 강사처녀가 마당으로 드나드는 문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해주었다.

《사람의 허리에 치는 이런 자그마한 문을 사립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드나들도록 늘 열어놓고있습니다. 우리 수령님도 이 문으로 나드시고 이 문으로 조국광복의 길을 떠나시였습니다. (열려진 사립문)에 대하여 우리 나라 예술가들은 훌륭한 시도 많이 쓰고 감동적인 노래도 많이 지었습니다.》

처녀강사는 조용히 이야기했지만 내가 받아안은 감동은 실로 크고 뜨거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4살 어리신 나이에 이 사립문을 나서시여 혁명의 길에 오르시였다.

그때 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일제를 쳐부시고 조선을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어리여있었다. 그이께서는 그 길로 압록강을 건너 혁명투쟁을 하고계시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찾아가시였다.

그때로부터 20년이 흐른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끝내 자신의 결심대로 조국을 해방하시고 개선하시여 이 사립문으로 들어서실수 있었다.

눈보라를 헤치며 포연탄우를 뚫고 20년, 하늘같은 아버님과 인자하신 어머님을 이국땅에 묻으시고 사랑

하는 동생마저 원쑤에게 빼앗기신채 할아버님과 할머님이 기다리시는 고향집의 사립문으로 홀로 들어서시는 수령님의 가슴은 저으기 아프고 쓰리시였다.

할머님께서는 신발을 신을 생각도 못하시고 버선발로 허둥지둥 달려나오시여 름름한 손자분을 그러안고 흐느끼시였다.

《왜 혼자 오느냐.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오면 못쓴다더냐.》

이 감격적인 상봉을 지켜보던 만경대사람들은 모두 목이 메여 어깨를 떨었다.

강사처녀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도 조용히 눈굽을 훔치였다. 매일처럼 이 사연을 들려주면서도 어쩔수 없는 모양이였다.

실로 감격과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이야기였다.

순간 나의 머리속에는 100여년간이나 꾸바의 독립을 위하여 싸운 우리 나라의 명장들에 대한 생각이 우렷이 떠올랐다.

호쎄 마르띠는 조국을 노래하는 자기의 소박한 시에서 내가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죽으면 나의 묘지를 꽃다발로 장식하고 기발을 꽂아달라고 절절히 토로하였다.

안또니오 마쎄오장군과 그 부하들은 옷도 변변히 걸치지 못한채 맨주먹이나 다름없는 빈손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과 맞서 수년동안이나 견결히 싸웠으며 막씨모고메스대원수도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후 퍽 오랜 세월이 지나서 시에라마에스뜨라산에서 피델동지를 선두로 한 꾸바애국자들이 힘찬 유격전을 벌렸으며 오늘은 미제의 범죄적인 봉쇄를 과감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있다.

조선의 만경대와 백두산, 꾸바의 시에라마에스뜨라와 몬까다!

이렇듯 두 나라 인민의 빛나는 력사의 고장은 하나로 잇닿아있으며 거기서 타오른 혁명의 홰불로 하여 서로의 리해는 더욱 깊어져 전세계인민의 귀감으로 되고있다.

이런 생각에 잠겨 만경대고향집을 돌아보는 나의 마음은 좀처럼 이곳을 떠나고싶지 않았다.

만경대고향집에서 얼마간 떨어진곳에 자리잡고있는 만경대혁명학원에서도 나는 숭엄한 생각에 잠겨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고있었다.

만경대고향집에서 시작된 혁명의 고귀한 뜻이 백두령봉을 거쳐 이 학원에서 줄기차게 이어져가고있으며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나갈 혁명의 후계자, 혁명의 미래들이 꿋꿋이 자라나고있었다.

나라가 해방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

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일군들을 전국각지로 보내시고 혁명투쟁을 벌리시던 중국 동북지방에까지 보내시여 항일혈전에서 희생된 혁명투사들의 유자녀들을 빠짐없이 찾아 자신의 곁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하시였다.

이렇게 하여 처음에는 소박한 교사가 여기에 세워졌는데 후에 학원은 전투비행기모형실과 전자계산기실을 비롯하여 현대적교육설비를 일식으로 갖춘 웅장화려한 배움터로, 혁명의 원종장으로 변모되였다.

나는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자녀들에게 돌려지는 위대한 사랑의 력사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이 훌륭한 학원에 깃든 은정을 두고 해설하여주던 강사는 웬일인지 퍽 목갈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만경대혁명학원이 세상에 더없는 배움터로, 유자녀들의 행복의 요람으로 되기까지에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녀사의 숭고한 뜻과 지성도 깃들어있습니다.》

강사의 해설은 점점 내 심장을 틀어잡으며 못내 마음을 설레이게 하였다.

항일혈전의 길우에서 먼저 떠나간 전우들, 혁명렬사들의 유자녀들에 대한 김정숙녀사의 보살피심은 참으로 지극하였다.

그 많은 이야기들중에서 나의 흉벽을 세차게 울려준

것은 1947년 8월 초순에 있었던 일이다.

희생된 전우들이 남기고 간 유자녀들을 한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 애쓰시는 한편 이미 조국에 나온 유자녀들의 생활을 보살피시기에 온갖 지성을 다하시던 김정숙녀사께서는 이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당시 만경대혁명학원 림시교사가 자리잡고있던 대동군 재경면 간리에 나가시여 유자녀들을 따뜻이 품에 안아주시였다고 한다.

갖은 고생을 다하며 멀리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갓 나온 유자녀들은 대부분이 허술한 옷차림을 하고있었다.

꿰진 베적삼밑에 드러난 벌건 살결, 닳아빠진 짚신밖으로 삐여져나온 발가락들, 더부룩한 머리… 그러면서도 장군님을 뵈옵게 된 감격으로 하여 그들은 연신 눈물을 흘리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억이 막히고 가슴이 아프시여 입술만 깨무시고 서계시다가 그들을 꽉 껴안으시고 《**일없다. 울지들 말어라. 이제 옷도 좋은것으로 해입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 된다.**》고 퍽 갈리신 음성으로 위로해주고 고무해주시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어버이장군님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유자녀들을 껴안아주시고 《애들아, 울지 말아, 이 기쁜 날에… 이제는 너희들이 고아가 아니다.

장군님께서 너희들을 보살펴주고계신다. 김일성 장군님은 너희들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목메여 이르시였다.

녀사를 우러르는 수원들도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어깨를 떨었다.

이날에 받으신 충격이 얼마나 크시였던지 댁으로 돌아오신 김정숙녀사께서는 옷차림이 람루하여 장군님의 품에 선뜻 안기기를 꺼려하던 어린 원아들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오늘 장군님께서 어찌나 가슴아파하시는지… 점심식사도 드시지 않으시고 심려하시였어요.》

그러시면서 녀사께서는 빨리 그 애들을 잘 입히고 잘 먹일수 있게 되여야 장군님께서도 기뻐하시겠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그후 개원식전으로 원아들의 제복을 다 새로 해입히도록 하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그후 어머님께서는 손수 제복견본도안을 그리기도 하시고 자주 피복공장들에 나가시여 하루빨리 옷을 다 만들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제복은 개원식전으로 원아들에게 일제히 공급되였다.

참으로 나무랄데 없는 제복이였다.

일부 좀 큰것도 있고 원아들의 몸에 꼭 맞지 않는것도 없지 않았으나 그것은 하루가 다르게 크는 원아들이여서 그래도 참을수 있었다. 또 많은 제복을 단꺼번에 만들었기때문에 어차피 나타날수도 있는 현상이여서 스쳐보낼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김정숙녀사께서는 이것을 그냥두지 않으시였다.

《내 친자식이라면 단추구멍이 좀 틀려도 그냥 입힐수 있을거예요. 그렇지만 그 애들에게만은 그래서는 안되요.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이예요. 난 그 애들이 지난날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내려가지 않아요.》

녀사께서는 해당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재봉공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밤이 깊도록 설친 바느질도 다시 하시고 비뚤어진 단추구멍도 바로 잡아주시였다는것이였다.…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미여지게 하는 말씀이였고 새기면 새길수록 눈물이 솟구치게 하는 사랑이였다.

나는 원아들의 제복을 쓸어만지며 한동안 말을 못했다. 김정숙녀사의 그 숭고한 뜻이 슴배이고 그 지성과 사랑이 오리오리에 깃들어있는 이 제복이야말로 그 어떤 총탄도 뚫을수 없는 갑옷이고 혁명의 제복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한평생 원아들을 위해, 인민을 위해,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정숙녀사!

백두산기슭에 청춘을 묻으며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어오시다가 만복을 누릴수 있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너무도 일찌기, 너무도 애석하게 세상을 떠나신 조선의 어머니!

나의 이슬진 눈앞에는 며칠전 혁명렬사릉을 참관할때 존경하는 김정숙녀사의 동상을 우러르며 감격에 북받쳐 시간가는줄 모르던 일이 가슴뿌듯이 되새겨졌다.

인자하신 미소를 머금으시고 자애롭게 굽어보시는 김정숙녀사!

그 미소는 푸른 하늘에서 쏟아지는 태양의 따사로운 빛발과도 같았으며 온갖 꽃들이 다투어 피여나는 봄의 포근한 대지와도 같았다.

나는 그이께서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신것이 너무나도 비통하고 괴롭고 억울하여 걸음을 뗄수 없었다.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현실이고 애석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크나큰 아픔이 나의 저려드는 가슴에 휩쓸어들었다.

나는 녀사의 반신상을 우러러 깊이 머리숙였다.

머리숙인채 굳어진대도 여한이 없을것 같았다.

나는 렬사릉을 다 돌아보고나서 또다시 존경하는

김정숙녀사의 반신상을 우러러 깊이 머리숙여 인사 올리였다.

이것은 나 하나뿐이 아닌 꾸바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이고 애석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였었다.…

나는 그 순간이 눈물겨웁게 떠올라 오열을 삼키며 그냥 원아들의 제복을 쓸어만지였다.

외국로인의 심정을 리해한듯 원아들도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머금었다.

나는 그들을 와락 그러안고 이렇게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너희들은 비록 부모가 없지만 부모있는 아이들 못지 않게 행복하다. 그것은 너희들을 낳아준 어머니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했고 너희들의 생명을 준 아버지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과 은정을 주시는 훌륭한 부모가 있기때문이다.

너희 아버지는 위대한 장군님이시고 너희 어머니는 위대한 조국,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다.》

그들은 씩씩하게 대답하며 모두들 나를 부둥켜잡았다.

나는 달아오르는 마음으로 학원의 음악실에도 들리였다.

내가 방에 들어서자 원아들이 꾸바의 혁명가요 《꾸바 씨·양키 노》를 부르며 나를 뜨겁게 맞아주었다.

조선의 어린이들이, 만경대의 아들딸들이 꾸바의 혁명가요를 부르며 열렬히 환영해주니 나는 삽시에 커다란 감동에 휩싸였다.

형제적인민의 아들딸들까지 꾸바를 사랑하고 위해주니 왜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겠는가.

나는 그 마음도 함께 담아 감상록에 이런 글을 남기였다.

《혁명을 위하여, 조국의 영예를 위하여 배우고 또 배우시오.

너희들을 지켜보는 아버지가 계시니 정력을 아끼지 말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떨어지자니 섭섭하기 그지 없었다.

나의 두팔에 매달리던 그들이 오래도록 손저어 바래줄 때에는 저도모르게 뜨거운것이 눈굽을 적시였다.

나는 줄곧 그들을 바라보며 혁명의 대가 굳건히 자라고있는 조선의 미래는 창창하고 백전백승하리라는 생각을 굳히였다.

그후 나는 녀항일투사들과의 담화를 통해서도 이것을 확신하였다.

녀투사들인 박정숙, 김혜순 동지들은 나이는 많았으나 매우 정정하였다.

나는 커다란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규군에서도 녀자들은 복무하기가 힘든데 하물며 유격전을 하는 가혹한 조건에서야 얼마나 어려웠으랴.

우리 꾸바와는 달리 조선에서처럼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속에서 남자들과 꼭같이 험산준령을 오르내리고 수백리길을 내달아야 했다니 그 고생은 상상도 할수 없었을것이다.

내가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한 녀투사는 웃으며 말하였다.

《그뿐이 아니였습니다. 숙영지에 도착하면 우리 녀자들은 더 분주하였답니다. 바느질도 해야지요, 빨래도 해야지요, 밥도 지어야 했지요. 그러니 남자들의 배를 한셈입니다.》

다른 녀투사도 한마디 덧붙였다.

《그런 조건에서 우리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년동안을 싸워야 하였습니다.》

이윽하여 그들은 화제를 돌려 김일성동지를 호위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감명깊게 들려주었다.

적탄이 비발치는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한몸으로 막으시고 명중탄을 퍼부어 위기를 헤치신 아슬아슬한 이야기며 늘 은수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시다가 사령부를 해치려고 들여보낸 독소금을 제때에 밝혀내신 이야기 등 갖가지 생동한 일화들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러고는 말끝을 이렇게 맺는것이였다.

《우리도 김정숙동지가 그리워질 때면 늘 혁명렬사릉을 찾아갑니다. 우리 인민들모두가 그렇게 하지요. 김정숙동지의 반신상앞에 서면 왜 그런지 눈물이 앞서고 목이 메여 그 자리를 좀처럼 뜨지 못합니다.》

그렇다. 사람은 한생에 잊지 못할 추억이 있는 법이니 위대한 넋이 고이 잠든 그곳에서 어찌 발걸음을 쉬이 뗄수 있겠는가.

오늘도 그 녀투사들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생을 바쳐가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가고있다.

인민의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성한 나무가 억센 뿌리에 받들려 탐스런 열매를 맺듯이 이 나라 모든 아들딸들의 충성과 효성에 떠받들리여 숭고한 위업을 이룩해나가고계신다.

나는 녀투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깊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녀성들은 조국의 주추돌이고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는 혁명의 녀신이시다.)

4. 정당한 사상은 가장 깊은곳에서

꾸바 제2차독립전쟁의 지도자이며 작가인 호세 마르띠(1853~1896)는 《정당한 사상은 굴속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개척된다.》고 하였다.

이 명제의 진리성과 과학성은 내가 조선에 와서 모든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과정에 더욱 확증되였다.

나는 조선의 가장 깊은곳을 보았고 여기서 가장 정당한 사상과 리론, 값높은 삶과 행복을 보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동지께서는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남에 대한 의존심과 기성리론에 대한 교조적태도를 배격하시고 천재적인 예지로 조선의 지리적위치와 력사발전의 특수성, 조선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교훈,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세계혁명운동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항일무장투쟁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백만대적을 때려부시였으며 주체의 전법으로 50년대의 전쟁을 이끄시였다.

조선이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하였다면 꾸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미제를 거꾸러뜨린 자랑을 가지고있다.

조선에서는 주체사상을 혁명위업완성을 위한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투쟁함으로써 전후복구건설에서도 사회주의기초건설과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에서도 력사적인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참새마저 찾아보기 힘들던 그 페허우에 오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마지 않는 지상락원을 펼쳐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가장 깊은곳,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전풍부화하신 주체사상은 오늘 세계적인 학설로서 인류사상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주체사상은 현시기 첨예한 문제로 나섰던 사회주의의 좌절과 그 원인을 비롯한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 세계 수억만 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의 재생과 그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신하게 하고있다.

쏘련을 비롯한 동구라파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 이는 세상사람들을 놀래우고 아연케 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는가, 70여년동안이나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나라가 그것도 초대강국이라고 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질수 있단말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하였다. 누구도 명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있을 때 김정일비서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은 쏘련과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된 원인을 명철하게 밝히였으며 지금까지 나의 머리에 안개속의 신기루처럼 묘연하게 생각되던 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었다.

로작에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근본원인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의 본질을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리해하지 못한데로부터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지 못한데 있다고 밝히고있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사회이며 통일단결된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이다.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능력을 가지고 동지적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여기에 모든 착취사회와 구별되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이 있으며 사회주의사회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있다.

김정일비서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인간개조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고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주체의 역할을 높여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된다고 지적하시였다.

전 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니나 안드레예바는 1992년 10월 26일 《로동신문》에 낸 글에서 이 명제의 정당성을 자기 나라, 이전 쏘련과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 지도자들의 행위를 분석하는것으로써 설명하고있다.

그의 글에 의하면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의 지도자들 특히 사회주의혁명의 극악한 배신자이며 제국주의의 하수인인 고르바쵸브는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고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나갈대신 집권하자부터 사회주의를 말살할 목적으로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하며 당세도를 조장함으로써 당과 대중이 두쪽으로 갈라지게 하였다는것이다.

그는 또한 쏘련에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로부터 《전인민적인 국가》로 변하면서 관료주의가 판을 치고 뢰물, 매관, 매직 행위들이 늘어났다고 하면서 이것은 쏘베트국가의 사회적지반을 파괴하고 근로자들의 지지를 잃게 하였으며 사회의 정상적기능을 파괴하는 범죄와의 투쟁을 마비시켰다고 쓰고있다.

그는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렬거하고

있다.

이른바 《전인민적국가》를 통하여 대중의 의식속에는 소위 《전반적평등》과 《순수》한 민주주의에 관한 사상이 침습하기 시작하였다.

이 부르죠아사상은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억압자들과 억압받는 사람들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평등의 관계가 있을수 없다는것을 부정하였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종국적승리》에 관한 흐루쑈브의 허황설로부터 시작하여 《발전된 사회주의》에 대한 브레쥬네브의 궤변을 거쳐 우경기회주의는 종국적으로 배신자, 변절자들이며 제국주의앞잡이들인 고르바쵸브일당을 대두하게 하였다.

얼마전까지만도 《인터나쇼날》노래를 부르던 고르바쵸브일당은 지금 《사회주의의 파산》, 《력사적인 궁지》, 《실패한 시험》에 대하여 게거품을 들고 떠들어대고있다고 비수같은 문제와 론거로 단죄하고있다.

나는 니나 안드레예바가 쓴 글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서 지적한 자료들과 론거들을 보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모든 나라들은 쏘련과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처럼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무시하고 그 우에 군림하여 호령하고 전횡을 부리다가 망한데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꾸바는 피델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인민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지켜나가고있다.

미국놈들이 우리 꾸바를 집요하게 봉쇄하고 《맘비방송국》과 《페방송국》을 통해 하루 24시간동안 반꾸바선전을 들이대는 한편 반혁명그루빠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어 갖은 책동을 다 벌리고있는 조건에서도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두리에 굳게 단결된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냐, 죽음이냐, 우리는 승리할것이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견결히 싸워나가고있다.

우리의 정당한 위업은 조선인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으며 전세계 수억만 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동정을 받고있다.

이번 아바나에서 진행된 꾸바와의 련대성구라파회의가 그 좋은 실례로 될것이다.

회의에서 채택된 최종선언은 미국이 관따나모해군기지를 철페하고 항시적인 군사적위협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으며 1994년을 꾸바와의 련대성의 해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1994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아바나시에서 꾸바와의 련대성을 위한 세계대회를 소집한다고 밝히였다.

이것은 꾸바를 봉쇄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벌써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것을 의미하며 우리 인민의 승리,

꾸바혁명의 승리는 필연적이라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비서동지께서는 로작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원인은 또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질적차이를 보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일관성있게 견지하지 못한데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구현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이 근본원칙은 순풍에 돛을 달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였을 때뿐아니라 돛을 달기 위하여 바람을 일궈야하는 역경속에서도 일관성있게 견지하여야 한다.

그이께서는 완벽한 론거와 론증으로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은 달라질수 있어도 사회주의의 근본리념과 요구는 달라질수 없다는데 대하여,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투쟁에서 혁명적원칙을 버리는것은 곧 투항과 변절을 의미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고계신다.

니나 안드레예바는 이에 대하여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과정을 놓고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두고 설명하고있다.

니나 안드레예바는 쏘련공산당지도부가 당의 령도적역할과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지도기능을 약화시켰으

며 자본주의적인 소유관계와 경제관리방법을 받아들이고 제국주의와 투쟁할 대신에 무원칙하게 타협하는데로 나아갔기때문에 즉 수정주의정책을 실시하였기때문에 사회가 점차 병들고 썩게 되였다고 쓰고있다.

그는 또한 수정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개혁》하고 《개편》한다고 하면서 《다원주의》를 끌어들임으로써 사회주의의 부패과정은 더욱 촉진되였다고 강조하고있다.

니나 안드레예바는 계속하여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의 지도자들, 특히 사회주의위업의 극악한 배신자이며 제국주의의 하수인인 고르바쵸브는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사상적동요를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다원주의》가 표방하는 사상에서의 《자유화》,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를 허용함으로써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조장되여 사회공동의 리익을 침해하게 만들었으며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고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하였다고 분격에 넘쳐 쓰고있다.

나는 이번 조선으로 오는 도중 모스크바에서 며칠간 묵으면서 보고 들은 사실만으로도 그가 주장하는것들이 모두 옳은 견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스크바는 문자그대로 살풍경이였다.

반혁명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고수해온 이전 세대

들에게 대중적살륙으로 복수를 하고있으며 어린이들과 로인들은 생물학적생존의 마지막계선, 기아와 추위로 인한 삶과 죽음의 마지막계선에서 허덕이고있었다.

자즈러진 총소리, 간담을 서늘케 하는 폭음, 대낮에도 경찰과 총격전을 벌리는 마피아집단의 휘파람소리, 폭력과 색정, 무법천지를 설교하는 아나운사의 혀꼬부라진 소리, 싸구려를 웨쳐대는 장사군들과 갈보들의 웃음소리…

나는 이번 조선방문기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로작을 탐독하면서 사상의 자유화와 정치에서의 다당제를 허용하는것은 결국 사회주의사회의 기초를 허물고 인민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반혁명적책동에 길을 열어주는것으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이에 대해서는 로씨야의 이름있는 기자 이완 로보다도 김정일비서동지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를 탐독하고 쓴 자기의 글 《강력한 타격》에서 경종을 울리고있다.

그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공세앞에 겁을 먹고 사회주의원칙으로부터 한치 양보하게 되면 래일에는 열걸음, 천걸음 양보하게 된다는것을 피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하고있다.

오늘 세계 모든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을 찾지 못해 안타까이 모대길 때 김정일

비서동지께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끝까지 빛내일 방향과 방도를 천재적으로 명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를 발표하신것은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인가!

참으로 김정일비서동지께서 진보적인류앞에, 오늘 공산주의운동을 전개하고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위대한것이다.

김정일비서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것은 또한 사회주의나라 당들사이의 관계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꼴롬부스의 닭알》이란 말이 있듯이 지극히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똑바로 리해하지 못하고있다.

진리란 찾고보면 단순하고 명백하지만 그것을 찾는다는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옛사람들의 말이 아주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정일비서동지의 가르치심중에서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자주적으로 관철해나가는것은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매개 나라 당의 진정한 권리라고 하신 명제와 매개 나라 당들이 자주

성을 지키는것은 결코 다른 나라 당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 문제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신 명제는 그 진리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니나 안드레예바와 이완 로보다가 정당하게 지적한것처럼 지난 시기 쏘련공산당의 지도층은 자기네를 그 무슨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중앙》으로 자처하면서 다른 나라 당들에 이래라저래라 하고 지시하며 자기의 그릇된 로선을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큰 나라 당들이 대국주의를 하거나 작은 나라 당들이 대국주의에 아부하며 동지적단결과 협조를 강화해나가지 못할 때 사회주의위업은 우여곡절과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김정일비서동지의 가르치심은 매우 정당하다.

니나 안드레예바와 이완 로보다는 또한 자기의 글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과 옳바른 지도사상이 없을 때,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이 강화되고 일시적인 난관이 조성된다고 하여 사회주의원칙을 조금이라도 양보하게 될 때 사회주의위업은 우여곡절과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김정일비서동지의 명제의 정당성을 자료적으로 론증하고있다.

실로 김정일비서동지께서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명백히 밝히

심으로써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를 재생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것을 지침으로 삼도록 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가장 깊은곳,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를 훌륭히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심으로 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을 받고계신다.

지난 시기 기회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이 자기 수령을 존경하고 흠모하고있는것을 개인에 대한 숭배라고 시기질투하였는데 나는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견해라고 본다.

그것을 알려거든 조선에 가보시라.

그러면 김일성주석에 대한 조선인민의 존경과 흠모, 사랑은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는 그이의 위대한 풍모에서 나온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이것은 다름아닌 자기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응당한 도리와도 같은것이다.

나는 조선노래에 있는것처럼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조국도 없다는 그 진리를 실지 체험을 통하여 명백히 깨달았다.

꾸바사람인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고 가르치심을 받으며 인간적으로 매혹되고 숭배심이 솟구쳐 오르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또한 김정일비서동지의 여러 로작들을 탐독하고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감수하는 과정에 나는 그이의 심오한 사상과 천리혜안의 예지, 탁월한 령도에 저도모르게 탄복하게 되는데 당사자인 조선인민들이야 더 말해 뭘하겠는가!

5. 지구는 깨뜨릴수 있어도

1993년 12월 3일이였다.

풍치수려한 곧안에 자리잡은 숙소에서 글을 쓰던 나는 전국공산주의미풍선구자대회소식이 텔레비죤으로 방영된다는 통역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통역원 김동무가 단추를 누르자 마침 텔레비죤화면에는 대회장이 그대로 펼쳐지고있었다.

공산주의미풍선구자대회!?

난생 처음 듣는 소리여서 나는 귀가 동하여 대회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칠줄 모르는 박수갈채, 눈물을 머금고 토론하는 연사들, 감동을 금치 못해하는 대회참가자들…

게다가 토론자들의 연설내용이 완전히 나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로동자, 농민, 인테리, 군인, 남녀로소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바친 숭고한 정신세계, 즉 젊은 부부들이 자식없는 늙은이를 모셔다가 친부모처럼 섬기는 이야기, 처녀의 몸으로 고아들을 데려다 키우며 그들의 어머니가 되였다는 사연, 끌날같은 총각들이 운신조차 할수 없는 영예군인처녀에게 장가들고 꽃같은 처녀들이 하반신불수에 앞을 보지 못하는 영예군인총각에게

시집가는 눈물겨운 사실들, 호텔직원들이 잃어버린 손님들의 돈가방이며 귀중품을 찾아 그대로 돌려주는 아름다운 소행들은 나에게 심한 충격과 자극을 주었다.

이런 아름다운 미풍은 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경이적인 일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텔레비존화면에서 목격자들이 직접 말하는것처럼 조선에는 자기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동지를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지만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 있겠는지…

나는 이제야 비로소 천리마의 정신으로 세찬 날바다를 가로막고 서해갑문을 일떠세운 건설자들이 불사조와 같은 힘을 발휘할수 있은것도, 강선땅에서 천리마의 불길이 타오르고 대안에서 창조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가 생활력을 발휘하게 된것도, 지하철도가 생겨나고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이 솟아난것도, 이 땅우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상락원이 펼쳐지게 된것도 다 이 공산주의미풍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깊이 깨달았다.

또한 김일성주석동지와 김정일비서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불패의 힘,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도 이 공산주의미풍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조선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나라이다.

이 나라는 또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구호를 들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다.

이것이 오늘 조선의 참모습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은 단결을 이룩하면 승리요, 분렬되면 패배라는 것을 산모범으로 보여주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그렇다. 사상교양사업을 하지 않고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하지 못하면 결코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다. 지난 시기 쏘련은 1,800만명의 공산당원들을 가지고있었지만 이런 공산주의미풍을 발휘하게 하는 사상교양사업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군사초대국, 경제초대국으로 큰 소리를 많이 쳤지만 결국 사분오렬되여 74년간 건설하여온 사회주의가 잠간사이에 망하고말았다.

사상교양사업을 하지 않았으니 무너지는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그러나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동지와 김정일비서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주, 자립, 자위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싸워나가고있기때문에 백전백승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인민은 단결은 혁명이며 혁명은 곧 단결이라고,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렬되면 패한다고 소리높이 말하고있다.

우리 꾸바인민도 단결은 승리요, 분렬은 패배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싼혼과 바라과의 력사를 돌이켜보자!

《바라과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곳이다.》

이 말은 호쎄 마르띠가 한 말이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바라과처럼 필승불패하였다.

그것은 1868∼1878년사이에 안또니오 마쎄오의 지도밑에 있은 1차독립전쟁, 1895년 막씨모 고메스, 마르띠 마쎄오를 선두로 한 투쟁들, 1953년 몬까다병영습격전투 그리고 우리의 사령관이였던 체 게바라가 《한치도 내여주지 말라》고 말한것처럼 그 정신으로 미제의 침략과 봉쇄정책에 맞서 우리 인민이 투쟁하고있는데서 잘 보여주고있다.

오늘 꾸바는 피델동지를 선두로 하여 당과 인민이 굳게 뭉쳐있으며 한걸음도 양보하지 않고있다.

《조국이냐, 죽음이냐》, 《사회주의냐, 죽음이냐》라는 구호처럼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은 확고하다.

단결, 이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힘의 원천이다. 조선은 그러한 힘을 벌써 여러 기회에

과시하였다.

지금은 미국이 강요하는 《핵사찰》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미국이 그 아무리 권모술수를 다하며 조선인민의 기상과 의지를 꺾으려고 하여도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앞으로만 전진하고 있다.

꾸바인민도 전진하고있으며 그 어떤 위험이 막아서도 피델동지가 말씀하신것처럼 우리의 심장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주는 아드레날린이 더 많이 분비되게 할따름이다.

김일성주석께서 회고록에서 언급하신것처럼 조선과 꾸바는 단결되여있으며 미국이 아무리 조선을 봉쇄하려고 하여도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조선을 파괴한다는것은 닭알로 바위를 깨는격이다. 공산주의미풍선구자대회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지구는 깨뜨릴수 있어도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은 절대로 깨뜨릴수 없다는 것을!

6. 조선속에 전세계가 있다

인도의 유명한 작가 타고르가 1926년에 쓴 《조선》이란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 옛날 아세아의 황금시대에
등불로 빛나던 조선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네 다시 동방을 밝게 비치리

타고르가 참으로 선견지명이 있다고 할가 오늘 조선은 사회주의의 등대로 전세계를 비치고있다.

나는 이번에 조선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영원히 밝은 빛을 뿌리는 그 등대의 위대함을 온 몸으로 느끼였다.

그중에서도 나의 심장을 틀어잡은것은 묘향산지구에 대한 방문이였다.

나는 나흘동안 이 일대를 구체적으로 돌아보면서 내내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세계 수많은 나라 수반들과 정계, 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비서동지께 보내온 진귀한 선물들로 가득찬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며 넋

을 잃었고 아담하고 깨끗한 향산읍을 돌아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내가 돌아본 향산갑문이며 약수터, 내가 거닐어본 청천강유보도며 향산호텔로대, 내가 만나본 마음어진 향산혁명사적관 관장이며 나를 반갑게 맞아주던 향산고등중학교의 귀여운 학생들…

그 모든것, 그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지워지지 않는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나는 국제친선전람관 진렬대에 놓인 갖가지 희귀한 보물들에서는 물론이고 향산읍에 곧게 뻗은 시원한 도로에서, 유보도에 놓인 정다운 돌의자에서, 묘향산에 새로 개척되였다는 훌륭한 등산길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구김살없는 노래에서 가장 의의있고 위대한것을 발견하였다.

《**이민위천**》, 이것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말로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좌우명으로 삼으시는 명언이다.

김일성주석동지와 김정일비서동지께서는 인민을 믿고 싸우면 백전백승하지만 인민을 멀리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움직일수 없는 신념으로 삼고계신다.

인민을 왕으로 섬기는 조선에서는 인민이라는 말을 즐겨쓴다.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병원도 인민병원, 나라일을

의논하는 최고주권기관도 최고인민회의, 주민들의 하부말단행정단위도 인민반, 나라를 지키는 군대도 인민군대…

이렇게 꼽자면 끝이 없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비서동지께서는 인민을 믿으시고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기에 인민에게는 행복만을 주고싶어하신다.

바로 이런 분들이시기에 세계 여러 나라의 당, 국가지도자들과 인사들이 보내온 진귀한 선물들을 모두 전시관에 보관하게 하시고 전체 인민이 다 와서 볼수 있게 하시였다.

나는 자신께서 받으신 그 모든 선물을 하나도 쓰지 않으시고 인민들앞에 고스란히 내놓으시여 나라의 국보로, 인민의 재부로 되게 하신 김일성주석동지와 김정일비서동지의 그 고귀한 풍모에 머리가 숙여졌다.

또한 전시관에 진렬된 많은 선물들을 보면서 나는 조선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벗들을 가지고있는가에 대하여서도 잘 알게 되여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전람관의 내부를 다 돌아보고나서 로대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를 부감하였다.

이때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지으신 시 한수가 감회깊이 떠올랐다.

로대우에 올라서니 천하절승 예로구나
묘향산절경이야 태고부터 있는것을
전람관 여기 솟아 푸른 추녀 나래펴니
민족의 존엄 빛나 비로봉 더욱 높네

만산에 붉은 단풍 가을마다 붉었으리
로동당 새 시대에 해빛도 찬란하니
단풍도 고와라 더욱 붉게 물들면서
산천에 수놓누나 이 나라 새 력사를

사대로 망국으로 수난도 많던 땅에
온 세계 친선사절 구름같이 찾아든다
5천년력사국에 처음 꽃핀 이 자랑을
금수강산 더불어 후손만대 물려주리

실로 명시중의 명시였다.

나는 이 시에 담긴 뜻을 다시금 음미해보며 묘향산 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향산읍도 돌아보았다.

읍이라기보다 한개 주의 도시와도 같았다.

10층짜리 고층건물들, 현대적산업과 상점망들, 인민학교와 중학교들, 특히 묘향산경치를 다 관망할수 있는 피라미트형식의 향산호텔…

나는 이 모든것을 돌아보면서 당과 수령의 령도와

뜨거운 사랑이 가는곳마다에 깃들어있음을 알게 되였다.

묘향산은 등산에도 매우 좋은곳이였다.

김정일비서동지께서는 여기에 수십키로메터의 등산길을 몸소 마련하시여 근로자들이 오르내리며 수려한 풍치며 수정같이 맑은 폭포도 부감할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조선의 근로자들뿐아니라 외국의 벗들도 여기 와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묘향산지구는 참으로 행복한곳이였다.

내가 자연에 취하고 행복에 겨워 잠시 서있는데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는 조선노래《나는 생각해》였다.

이 밤이 깊을수록 나는 생각해
행복이 어디서 오는것인지

조선인민이 누리는 그 행복의 깊은 뿌리는 어떻게 내려진것인가.

그 행복은 바로 김일성주석동지와 김정일비서동지께서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로고에서 생겨난것이다.

어느 나라에는 《새는 밝은곳을 찾아 날고 사람은 행복을 찾아 줄곧 달려간다》는 속담이 있다.

인류는 장구한 력사를 걸어오면서 참된 행복을 갈망하며 목마르게 기원하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쉬이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인민들도 조선에 펼쳐진 행복을 맛볼수 없었다.

문명과 번영, 자유와 행복을 넉두리처럼 외우는 미국에 과연 이런 행복이 있다고 볼수 있는가?

없다.

있을수도 없다.

황색구름인양 밤하늘에 명멸하는 마천루의 갖가지 불빛이 과연 행복의 별빛들인가, 그 뒤 할렘가의 뒤거리에 과연 행복이 깃들었다고 볼수 있는가.

대도시의 다리밑에 모이는 수백만 실업자들, 허기진 배를 그러안고 쓰레기를 뒤지는 아이들, 살인, 강간, 절도, 폭행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그 모든것들이…

인민의 참된 행복은 뉴욕에도 빠리에도 런던에도 도꾜에도 그 어디에도 없다.

오로지 인민을 신처럼, 하늘처럼 여기고 내세우는 조선을 비롯한 진정한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제도에만 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하며 세상에 대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꾸바는 피델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이미 쟁취한 전취물을 수호하면서 우리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사회주의를 빛나게 건설하고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위업이 있고 피델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당과 꾸바인민의 일심단결이 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조선인민과 마찬가지로 우리 꾸바인민도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희망이고 리상인 사회주의를 끝까지, 그리고 빛나게 건설하리라는 확신과 신념에 가득차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사회주의 조선속에 전세계가 있다고, 인류의 미래가 있다고 말하는것이다.

7. 나무는 어릴 때 곧게 자라야 한다

지구우에 흘러간 인류의 교육력사는 실로 수천년을 헤아린다.

하지만 지구우에는 교육의 전성기가 펼쳐지지 않았다.

아직도 세계에는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문맹자가 수억을 헤아리고있다.

문명과 재부를 자랑하는 미국에서도 그 수자가 3천만명에 달하고있다.

미국에서는 어른 3명중 1명이 행표도 볼줄 모르고 지어 광고조차 읽을줄 모르며 스무살 청년들의 절반이상이 글을 몰라 신문도 읽지 못한다.

사람들이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나라 미국은 미래가 암담한 《문명의 왕국》이다.

조선을 두고 말할 때 이 나라는 아직 그리 부유한 나라라고는 할수 없지만 거지도 실업자도 없는 나라로서 누구나 문명하게 잘 살고있다.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며 기와집에서 살 세기적념원을 로동당시대에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을 힘있게 벌리면서 미제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강화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이 나라에서의 진정한 문화건설 특히 교육건설의 력사는 엄혹한 전쟁시기를 빼놓는다면 이제 겨우 40년에 이르고있을뿐이다.

하지만 오늘 조선에서는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꿈같은 배움의 락원이 펼쳐져 《사회주의교육의 모범의 나라》로 만민의 찬탄과 부러움을 자아내고 있다.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교육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어려웠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경제적타산을 앞세우지 않고 교육사업에 힘을 넣게 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찌기 교육사업을 중요한 혁명사업으로 규정하시면서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것은 민족의 흥망과 혁명의 장래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가르치시였다.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았겼을 때에도 주석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시면서 무엇을 첫자리에 놓으시였던가.

평양 만수대언덕에 웅장하게 일떠선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면서 나는 이에 대하여 더욱 잘 알게 되였다.

주석께서 젊은 신입대원들이 유격대오에 들어올 때마다 그들에게 총쏘는 법부터 배워주신것이 아니라 조

선글부터 배워주시였다는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그이께서는 혁명을 교육으로부터 시작하신것이다.

그리하여 유격대안에서도 늘 학습하였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단학교가 유격근거지의 곳곳에 세워졌다.

그들이 배운 내용이 또한 나를 감동시켰다.

조선은 산좋고 물맑은 아름다운 나라이며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이 사는 좋은 나라이다.

그런데 이 나라를 강도일제가 빼앗았다.

조선을 독립시켜달라고 그 누구에게 구걸할것이 아니라 총을 들고 싸워 제손으로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 한다.

총과 대포로 무장한 일제는 강대하지만 슬기롭고 용감한 전체 조선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껏 싸운다면 반드시 조국을 광복할수 있다.

이런 진리, 주체의 혁명사상으로 가슴을 가득채운 유격대원들은 용기를 내여 적과 피어린 싸움을 벌린 결과 마침내 조국을 해방할수 있었다.

나는 김일성주석께서 교육을 얼마나 중시하고계시며 후대들을 쓸모있는 공산주의혁명인재로, 참다운 애국자로 키우시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시였는가 하는것을 가는곳마다에서 보고 들을수 있었다.

나라가 해방되기전에 김일성동지의 고향인 만경대

에는 중학교가 없었다.

나라가 해방되자 그 고장사람들은 보란듯이 중학교를 하나 잘 지어놓고 그 이름을 《김일성중학교》로 부르려고 하였다.

자기 고장이 낳은 위대한 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세상에 자랑하고 영원히 받들고싶었던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주석동지께서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삼흥중학교》란 뜻깊은 이름을 달도록 하시였는데 그것은 어린이들이 지식, 도덕, 체력을 겸비하도록 교육한다는것이였다.

이 세가지가 흥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뜻이다.

교육에 대한 김일성주석동지의 크나큰 관심과 뜨거운 배려는 해방직후 새 조국건설을 령도해나가시던 첫 자욱에서부터 빛나게 아로새겨졌다.

해방된 조선에서의 진정한 첫 인민정권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회의 첫 의정으로 연필문제를 내놓으시였다.

참으로 이것은 그 어느 나라, 지나간 어느 세기에도 찾아볼수 없는 일이였다.

락후한 식민지반봉건국가였던 조선은 나라가 해방될때 변변한 공장이 거의 없었다.

게다가 패망한 일제는 쫓겨가면서 그나마 다 파괴해

버렸다.

새 인민정권의 첫 과업은 연필문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새 조국건설은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아이들의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는것, 조선은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나라라는것을 온 나라 인민들과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던것이다.

이처럼 위대한 주석이시기에 조국이냐 죽음이냐 하는 판가리싸움이 벌어지고있던 그때에도 교육만은 한 순간도 멈추지 않도록 하시였다.

나는 그 하많은 이야기들중에서 한가지 사실만을 여기에 적으려고 한다.

전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던 어느날 주석께서는 깊은 후방에서 찍어놓은 교과서를 제때에 수송해주지 못해 새 학기를 맞는 아이들의 공부가 늦어질수 있다는것을 아시게 되였다.

적들의 계속되는 폭격으로 전선에 절실히 필요한 탄약과 포탄도 미처 나르지 못하고있는 사정은 일군들로 하여금 교과서를 수송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석께서는 지체없이 군수렬차와 군대수송차들에 교과서를 실어 개학전에 학교들에 보내주라는 명령서를 친히 하달하시였다.

감동없이 들을수 없는 전설같은 이야기여서 나는 흥

분을 금할수 없었다.

한발의 포탄, 한알의 총탄이 목숨처럼 귀중한 그때 학생들의 교과서를 먼저 실어나르도록 하신 대용단은 전쟁승리를 확고히 내다보신 위대한 주석동지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철의 의지와 신념의 정화였다.

모든것이 파괴되고 모든것이 부족했던 전후복구건설시기 종이 한장한장이 금싸라기처럼 귀했지만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우선 교과서를 먼저 찍고 그 다음 신문을 찍으며 나중에 잡지를 찍도록 해주시고 아무리 종이가 귀해도 어린이들의 교과서는 희고 좋은 종이에 찍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시였다.

조선의 교육은 이처럼 그이의 적극적인 발기와 노력, 관심, 사랑에 의하여 시작되고 발전하게 되였다.

얼마나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인가.

이렇게 시작되고 더욱 높은 배움의 상상봉으로 치달아오른 조선의 교육은 정녕 주석동지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태여나 꽃피고 알찬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높이 말할수 있다.

인민대학습당의 시계종소리가 울려퍼질 때 두메산골분교의 수업종소리도 함께 울리고 평양의 거리거리에 넘치는 학생들의 랑랑한 글소리가 높아갈 때면 학생이 3명뿐인 등대섬학교에서도 글소리가 메아리친다.

이뿐이 아니다.

험산계곡의 아이들을 위해 통학렬차가 달리고 외진 벽촌의 한두명을 위해 통학승용차가 따로 정해있는 나라가 바로 여기 조선이다.

참으로 감격없이는 들을수 없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이 꿈같은 현실을 두고 조선이야말로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것이다.

나는 아름다운 보통강반에 자리잡은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참관하면서 그 규모가 웅장하고 설비와 교구비품이 현대적이며 학생들이 씩씩하고 명랑한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나도 아이가 되여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싶습니다.》

나는 통역원에게 웃으며 조용히 말하였다.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으랴.

이 학교의 일군들은 나에게 평양제1고등중학교가 처음 생겨나게 된 사연을 감동깊이 이야기해주었다.

《지난날 교육부문 일군들이 능력있는 아이들을 키울 생각을 못하고 뒤떨어진 아이들을 추켜세우는데만 급급할 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반대로 수재들을 다 찾아내고 키워내여 다른 아이들이 그들을 본받고 따라서도록 하시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능한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1고등중

학교가 서게 되고 이것을 본보기로 하여 온 나라 아이들이 경쟁적으로 따라배우도록 하였다는것이였다.

이야기에 귀기울여갈수록 김정일비서동지께서 지니신 비범한 예지에 대하여, 탁월한 교육방법론에 대하여 거듭 감탄하게 되였다.

그때 이 학교는 나라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맏아들인 셈이였다.

몇해 지나서부터 도마다 1고등중학교가 여러개 생기고 해를 거듭함에 따라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있다는것이였다.

나는 불쑥 이렇게 말했다.

《그럼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다 1고등중학교처럼 되겠구만요.

거참 부러운데요.》

안내원은 웃으며 틀림없이 그렇게 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했다.

나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김정일비서동지께서 교육사업을 돌보시고 이끌어주고계시기에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현실로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는 벌써 묘향산지구를 돌아보면서 깊은 지식을 습득할수 있는 규모가 큰 향산고등중학교의 현대적설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다.

농촌마을학교가 도시학교 부럽지 않았던것이다.

도시학교 못지 않은 현대기술을 소유할수 있는 전자계산기실, 녀학생실습실, 물리실험실, 라지오텔레비죤실험실, 화학, 생물 실험실, 체육실, 오락실에서 깨끗한 교복차림으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키워가는 산골아이들의 그 모습…

나는 이외에도 여러곳을 돌아보고 조선에서 교육우선을 내걸고 힘차게 투쟁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김일성주석동지와 김정일비서동지께서는 교육사업에 항상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조선에서는 11년제무료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는데 학령전 의무교육 1년기간에 학생들에게 수학과 체육, 음악은 물론 외국어기초교육과 노래, 춤까지 가르쳐준다.

나는 아이들의 공연과 솜씨를 보면서 그들의 재능에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인민학교 교육은 4년제이고 중학교는 6년제이며 대학은 5년제인데 의학대학인 경우 7년제이다.

그러니 총 19~21년간 공부하게 되는 셈이다.

오늘 조선에는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까지 정연히 세워져 173만명의 인테리대군이 자라났으며 약 300개에 달하는 대학들에서는 쓸모있는 인재들이 계속

육성되고있다.

국가는 새 학기를 맞을 때마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 교과서까지 공급하며 공부시키고있다.

또한 장학금까지 준다.

그리고 모든 학용품, 필수품들은 보잘것없는 값으로 팔아주고있다.

모든 학생들은 한가지 의무, 즉 공부를 잘하는 의무밖에 없다.

이처럼 김일성주석동지께서와 김정일비서동지께서 교육사업에 돌려주시는 크나큰 관심과 온 나라 아이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은정에는 끝이 없다.

언제인가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어느한 두메산골을 찾으신 주석동지께서는 그곳 농장원들이 벌방지대 농민들보다 잘 살지 못한다는것을 아시고 매우 가슴아파하시면서 해결방도를 찾아 해종일 비탈진 포전을 오르내리시였다는것이다.

그곳 농민들은 송구스럽기 그지없는 마음으로 주석께서 잠시나마 휴식하시도록 하고싶었지만 마을에는 그럴만한 집 한채 없었다.

주석께서 겹쌓인 피로도 푸시지 못하신채 이 고장을 떠나가신것을 두고 몹시 가슴을 태우던 이곳 농장원들은 그후 힘을 모아 제일 좋은곳을 택하여 훌륭한 집을 덩실하게 지어놓았다.

주석께서 다시 자기고장에 오시거나 김정일비서동지께서 오시면 잠시나마 휴식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어느해 김정일비서동지께서 그곳을 지나시게 되였다.

마침 휴식하실 때가 되자 그곳 일군들은 김정일비서동지께 지난날 가슴에 맺혔던 사연을 말씀드리고나서 그이께서 잠시나마 그곳에서 휴식하시도록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감사한다고 하시며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다가 그 집을 아이들의 학교로 쓰라고, 그러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그 사랑앞에 더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감격의 눈물만 흘리였다.

그리하여 이곳에는 《은덕분교》가 자리잡게 되였다.

김정일비서동지께서 교육사업에 돌려주시는 크나큰 관심과 온 나라 아이들에게 돌려주시는 다함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이 나라 어디서나 들을수 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가서 나의 이 감격은 절정을 이루었다.

독특한 조형적형태를 띠고있는 건물은 그 자체부터 나의 마음을 끌어당기였다.

소조실에 들어설 때마다 나어린 소조원들은 하던 일

을 놓고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나를 환영해주었다.

어떤 소조실에서는 박수를 치면서 《꾸바 씨, 양키 노》를 부르기도 하였다.

나는 박수를 치며 《꼬레아 씨, 양키 노》를 함께 부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여기서 우리 꾸바인민과 피델에 대한 조선인민의 뜨거운 친선의 정을 느끼였으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인 미제를 반대하는 한 전호속에 조선인민과 함께 튼튼히 서있다는 긍지감을 느낄수 있었다.

수예실에서 나는 다섯살난 어여쁜 소녀들이 조용히 앉아 바늘을 놀리며 화려한 꽃들과 아름다운 풍경을 한뜸한뜸 수놓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섬세한 솜씨를 두고 칭찬도 해주었다.

서예실의 한 소녀는 내앞에서 커다란 붓을 휘두르며 《친선》이라는 글을 써서 나에게 기념으로 주었다.

음악소조의 한 방에서는 가야금연습이 한창이였는데 그들도 나에게 민족적정서가 풍기는 곡을 하나 연주해주었다.

정말 하나같은 재간둥이들이였다.

조선은 정말 재간둥이들이 많은 나라이다.

몇해전 일곱살나는 조선의 오은별이란 소녀는 모스크바와 쟈카르타, 방코크와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세련된 그림솜씨로 대통령부인도, 왕실궁전의 공주아가씨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였을뿐아니라 5살때는 국제어린이그림전람회에서 영예의 1등까지 하였다고 한다.

일곱살난 한 소녀는 조선을 대표하여 세계바둑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한나라를 대표하는 《어른》들을 여러명 물리치고 8위를 하여 상까지 받았으며 12살난 나어린 다른 한 소녀는 세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모든 강자들을 물리치고 단연 1등을 하여 미국의 하늘높이 공화국기를 휘날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히 울려퍼지게 하였다.

그밖에도 학령전 나이에 외국어로 척척 말하는 소년 또 그 나이에 대수문제를 쉽게 풀줄 아는 소년, 이런 재간둥이, 이런 수재들이 조선에는 차고넘친다.

그것은 해빛이 따사롭고 옥토가 기름져야 숲이 무성하게 일떠서는것처럼 주체의 태양인 위대한 김일성주석동지의 따뜻한 해빛이 찬란히 비치고 친애하는 김정일비서동지의 넓고 따사로운 품이 있기때문이다.

호쎄 마르띠는 어린이들을 가리켜 세계의 희망이라고 하였고 우리의 탁월한 수령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어린이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고 정당하게 가르치시였다.

이렇게 귀중한 아이들은 조선에서처럼 어릴 때부터

조국애로 대바르게 교육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미래를 위한 일군으로 잘 키워야 한다.

조선에서는 아이들을 키우기에 달렸다고 하면서 그들을 키우는 교육자들에게 먼저 혁명가가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밝힌대로 어린이들을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육하는 문제가 교육자들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의 참된 인간의 풍모를 갖출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인간의 풍모를 갖추게 하자면 어린시절부터 교육을 잘해야 한다.

교원은 직업이 아니라 혁명가이며 인간정신을 키우는 원예사이다.

원예사가 나무를 키울 때 얼마나 품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는가에 따라 그 나무의 쓸모가 규정되는법이다.

꾸바에는 이런 시가 있다.

어릴 때 구부러진 나무
결코 통나무로는 되지 못하리
아이적버릇 여든에 가듯
거목이 되여도 쓸모없는법

8. 붓을 존중하는 나라

이 땅우에 계급이 생겨난 이래 인테리는 독자적인 계급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계급에 복무하는 사회의 중간층으로 인정되여왔다.

각이한 계급들은 이 사회의 중간층을 놓고 제가끔 자기편으로 끌어당기여 인테리는 이쪽편에 가붙고 저쪽편에 기울어지군 하였다.

이리하여 인테리의 이중성, 동요성때문에 그들은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아 피해를 입군 하였다.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에서도 인테리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고 까다로운것으로 여겨왔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인테리들에 대한 전혀 새로운 견해를 가지시고 은정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테리를 혁명투쟁과 사회발전의 추동력으로 보시고 그들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인테리들의 지식과 재능에 앞서 인간 그 가체를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존중해주시면서 자주적인간답게 살아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혁명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시고 혁명의 일시적리용물이 아니라 공산주의사회까지 데리고갈 영원한 동행자로 삼으시고 그들의 운명을 책임져주시였다.

김일성주석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실 때 당마크에 마치와 낫과 함께 붓을 새겨넣도록 하시였다.

인테리의 상징인 붓!

붓이 얼마나 큰일을 하는가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 붓을 쥔 사람을 국보처럼 아끼고 존중하는 나라는 없다.

붓을 존중하는 나라!

그것으로 하여 조선은 더욱 돋보이고 인류의 감탄과 부러움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울창한 밀림을 가꿔가는 사람은 어느한 나무도 스쳐보지 않고 애지중지하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며 온갖 지성을 다 바쳐나간다.

김일성주석동지께서 가꾸어주시고 김정일비서동지께서 꽃피워주시는 이 나라의 인테리정책의 위대성은 영원한 노래가 되여 온 나라 강산에, 온 누리에 울려퍼지고있다.

내가 조선에 머무르면서 만나본 수많은 인테리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에 대한 수령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깊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감동을 금치 못

해하였다.

어느해 설을 앞둔 때였다고 한다.

김정일비서동지의 책상우에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보내온 편지들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그이께 삼가 새해인사의 편지를 올린 사람들가운데는 굴지의 광산과 탄광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는 지배인들도 있었고 용광로앞에서 그이를 만나뵙던 로력영웅인 용해공도 있었으며 매해 계획된 알곡을 꼭꼭 수확하는 서해안 어느 농장의 관리위원장도, 도시를 떠나 고향농장에 뿌리내렸다는 처녀분조원도, 전연의 인민군부대 사령관들도, 먼 바다에 떠있는 무역선의 선장들도 있었다.

김정일비서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신채 편지들을 일일이 번져보시다가 한장의 편지에 시선을 멈추시였다.

시인들이 그이께 삼가 올린 편지였다.

그들은 편지에서 김정일동지께 새해인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영원히 당과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불같은 결심을 다지였다.

그이께서는 대견해하시며 그들에게 회답편지를 쓰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한자한자 쓰신 회답편지가 다음날 당보 1면에 친필그대로 크게 실렸을 때 당사자

들인 시인들뿐아니라 온 나라 인테리들의 감격은 실로 컸다.

어려운 때일수록 인테리들을 더 깊이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고마워 목이 메였고 그 사랑이 뜨거워 눈물흘렸다.

하기에 이 나라 인테리들은 하늘땅이 다하도록 수령님을 모시고 따르며 세상이 열백번 뒤집힌대도 오직 당과 운명을 같이할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나는 체류기간 조선의 인테리들과 여러차례 만났는데 그 가운데는 지주출신도 있었고 로동자, 농민 출신도 있었으며 투사출신도 있었다.

한 인테리는 전쟁시기 어렸을 때 미제에 의하여 심히 부상당하였을뿐아니라 놈들의 기총사격에 어머니와 동생을 잃은 고아였다.

그는 폭격속에 구원되여(아직도 그의 왼팔에는 상처자리가 력력히 남아있다) 위대한 주석의 품에 안겨 존경하는 김정숙녀사의 숭고한 뜻이 어린 학원에서 공부하고 김일성종합대학을 거쳐 오늘은 훌륭한 작가로 자라났다.

내가 만났던 다른 인테리는 남조선에서 살던 대지주의 출신으로서 해방후 북조선에 들어와 위대한 주석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진정한 행복과 삶의 보람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또 다른 인테리는 농민출신으로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한몸바쳐 싸운 제대군인이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김일성주석동지와 김정일비서동지를 친어버이로,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며 흠모해마지 않았다.

내가 만났던 인테리들을 비롯한 모든 조선의 지식인들이 1992년 12월 평양에서 열렸던 조선지식인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목소리를 합쳐 부른 웨침은 나의 심장을 울려준 명제중의 명제였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지식인들에게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다.》

이런 배심을 가진 조선의 인테리들이기에 그들은 그 어떤 험난한 적구에 놓여도 외로운 섬에 내던져져도 지어 철창속에 갇힌다해도 김일성주석동지와 김정일비서동지만을 믿고 따라나갈것이다.

나는 얼마전 리인모동지를 그의 집에서 만나보면서 강렬한 충동을 받았다.

리인모는 종군기자의 임무를 맡고 전쟁에 참가했던 인테리의 한사람이였다.

원쑤들은 그를 포로하여 감옥에 가두어놓고 매일같이 고문도 하고 유혹도 하면서 다시는 공산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전향문을 쓰라고 강박하였다.

그들의 요구대로 몇자만 끄적거려놓으면 그는 지옥

같은 감옥에서 풀려나와 자유로운 몸이 될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10년, 20년도 아닌 34년동안 감옥에 갇혀있으면서도 절대로 원쑤에게 굽어들지 않았고 꺾이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온 세상에 이름떨치며 사랑하는 조국,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품에 안기게 되였다.

조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다.

하지만 리인모동지가 한 인간의 생애로 보면 너무나 긴 세월, 강산이 세번씩이나 변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기간을 불굴의 의지로 온갖 고초를 이겨내며 싸워이길수 있었던것은 무엇때문인가?

리인모동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길은 전적으로 옳은 길이며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 나라에 인민의 락원이 펼쳐지고 지구우에 공산주의 밝은 세상이 꼭 온다는것을 굳게 믿었기때문이지요. 그 신념이 없었더라면 나는 34년은 고사하고 단 34일도 견디여내지 못했을것입니다.》

참으로 감동깊은 이야기였다.

어느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는 리인모동지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올린 헌시

몇편이 실리였다.

어느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

유혹의 전향문이 괴롭힐 때마다
내 심장속에 계신분은 어버이수령님
불사의 힘으로 나를 지켜주신분은
백두산의 아들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해가 바뀌여 머리가 희여져도
언제나 당신은 나의 하늘이였습니다.
그래서 30대 청춘기에도 그 신념
그래서 70대 황혼기에도 그 의지

…

조선의 인테리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

오늘 이 나라 인테리들은 당이 인테리를 굳게 믿고 인테리들이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일심단결이 이루어져있어 그 어떤 폭풍우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시련을 맞받아나가고있다.

그런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동구라파나라들에서는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가.

그 당들은 붓을 존중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어떤 나라에서는 인테리들을 따라오면 좋고 따라오지 않으면 타도한다는 식으로 랭대하며 주시하였다.

어떤 나라에서는 인테리들을 혁명의 동행자로 본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과 재능을 리용하고는 내버리는 일시적동반자로 보았고 그들의 운명은커녕 생활조차 돌보아주지 않아 인테리들은 점점 당을 불신하고 멀리하였다.

그리하여 당을 찬양하는것은 고사하고 지지하지도 않았을뿐아니라 나중에는 당과 국가를 헐뜯고 배반하게 되였다.

결국 붉은기를 높이 들고 인터나쑈날의 노래를 엄숙하게 부르던 그 인테리들이 오늘은 당과 국가를 뒤집어엎는데 앞장서게까지 되였다.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

지금 로씨야와 동구라파나라 수십만 인테리들은 《두뇌류출》의 거루배를 타고 조국을 떠나 서방세계로 물밀듯이 밀려나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돈주머니를 미끼처럼 흔들면서 꼬여내고는 실지에 있어서는 헐값으로 그들을 고용하고있다.

이 나라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은 《두뇌류출》로 하여 경제발전이 수년, 수십년 뒤걸음칠것이라고 아우성을 치고있지만 그것을 도저히 막아내지 못하고있다.

붓을 인정하지 않고 붓을 존중하지 않은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며 응당한 교훈이다.

붓을 존중하는 조선에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높은 목표를 내놓고있다.

문맹을 말끔히 퇴치한 나라가 지구우에 몇나라 안된다는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위대한 주석께서는 지금으로부터 근 50년전, 나라가 해방된 그 시기에 벌써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터전을 마련해오시였다.

나는 얼마전 김일성종합대학을 돌아보면서 이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나라가 해방되였을 때 이 나라에는 대학이 하나도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체없이 종합대학을 세울것을 발기하시였다.

그러나 종합대학을 세우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사실 당시에는 교원을 할만한 인테리도 몇사람 되지 않았고 게다가 건설용 목재도 벽돌도 돈도 몹시 부족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결심을 굽히지 않으시였다.

곰팡이 낀 세기적인 락후의 흔적을 말끔히 털어버리

고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세워 이 땅우에 공산주의락원을 하루빨리 건설하자면 대학건설을 한시도 미룰수 없었다.

이리하여 종합대학건설은 힘있게 추진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제땅에서 평생 처음 농사를 지어본 농민들이 자진하여 나라에 바친 《애국미》를 밑천으로 대학건물은 한층한층 높아갔고 인민들의 애국의 열의와 바쳐가는 땀으로 끝내 대학건설을 완공할수 있었다.

김일성주석동지께서는 종합대학건설을 구상하시던 그때 벌써 온 나라 방방곡곡에 널려있는 인테리들에게 친히 편지를 띄우시고 일군들도 파견하시여 교단으로 불러주심으로써 대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이 없게 하시였다.

나라에 첫 종합대학이 서자 인민들은 김일성종합대학이라는 뜻깊은 이름으로 사랑스럽게 부르며 기뻐하였다.

나는 한창 전쟁이 가렬하던 1951년에 김일성종합대학을 본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미국놈의 폭격으로 몹시 파괴되여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훌륭히 개건확장되고 현대적교육설비를 갖춘 교사들이 즐비하게 일어서서 과학의 최고전당으로 되였다.

지금 이 나라에는 여러개의 종합대학뿐아니라 수백개의 대학들이 있어 나라의 인테리대군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이밖에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것은 평양의 중심부에 웅장하게 솟아있는 인민대학습당이다.

여러마리의 학이 모여앉아있는듯한 모양으로 일떠선 인민대학습당은 조선식건축미를 자랑하며 10만평방메터의 어마어마한 연 건축면적을 차지하고있다.

그것은 김일성광장을 앞에 둔 언덕에 높이 솟아있어 더더욱 그 웅자를 빛내이고있다.

이것은 자본주의나라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자본주의나라들에는 수도중심부에 대통령궁전이나 정부청사를 비롯한 국가통치에 필요한 건물을 요란하게 지어놓고 위엄을 보이지만 이 나라에서는 수도중심부에 인민대학습당을 덩실하게 세워놓고 조선은 공부하는 나라, 배우는 나라라는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나는 인민대학습당을 참관하면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께서 여기에 얼마나 큰 관심을 돌리고계시는가를 잘 알게 되였다.

원래 지금 인민대학습당이 선 그 자리는 평양의 중심부이기때문에 나라에서 퍽그나 아껴오던 자리였다고

한다.

인민들은 저 자리에 무슨 건물을 지을것인가에 대하여 늘 궁금해하였으며 제나름으로 짐작해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인민대학습당이 빠른 속도로 건설되는것을 본 인민들은 못내 감격해하였다고 한다.

안내원은 나에게 이야기해주었다.

《이 학습당에서는 전체 인민이 열심히 공부하고있습니다.

우리 조선사람들은 참으로 향학열이 높다고 할수 있지요.

하지만 해방전에는 일본놈들에게 짓밟혀 배울래야 배울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민의 이 소원은 오늘 로동당시대에 와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의하여 완전히 풀리게 되였습니다.

이 학습당 하나만 봐도 장서능력은 3천만권, 서가길이를 계산하면 165키로메터, 크고작은 방은 600여개, 좌석은 5천석이며 여기서 하루에 1만명정도 공부시키고있습니다.

우리 궁전은 온 나라 근로자들을 위한 통신대학과도 같습니다.》

뜻깊은 말이였다.

그것은 온 나라가 배운다는 말이고 나라에서 국보로 아끼는 인테리가 나날이 늘어간다는 의미이다.

인민대학습당에 들어서는 젊은 세대들의 앞길은 얼마나 창창한가!

나는 우리 꾸바형편에 대하여 돌이켜보았다.

우리 꾸바에서도 인테리대렬을 강화하고 붓을 존중하고있다.

꾸바의 인테리들은 사회주의혁명을 지켜나가며 이렇게 웨치고있다.

《혁명만이 살길이다. 반혁명이 가져다주는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테리를 존중하고 인테리를 내세우는 우리 사회주의제도, 조선과 꾸바에서 사는 인테리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긍지높은것인가.

9.《권총을 들이대면 포를 내댈것이다》

파쑈독일이 격멸되던 1940년대중엽에 오스벤찜과 마이다네크에서의 파쑈독일의 악행이 알려지자 세상사람들은 몸서리쳤다.

조선의 신천땅에서 미제침략군이 저지른 만행이 세상에 전해지자 오스벤찜과 마이다네크를 릉가하는 그 참상앞에 인류는 다시금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미제침략군은 자그마한 도시 신천을 강점하여 두달도 못되는 동안에 무려 3만 5천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살륙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던것이다.

당시 미제침략군 한 우두머리는 자기 병사들앞에서 《닥치는대로 죽이라. 설사 그대앞에 나타난것이 어린이나 로인이라 할지라도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라고 지껄이였다.

《렬등민족》을 잔인하게 학살한 야수들만이 할수 있는 말이다.

나는 이번에 조선을 방문하여 감격스럽고 보람찬 나날을 보내면서도 40여년전에 보았던 신천땅의 참상이 그냥 얼른거려 치를 떨군하였다.

신천땅을 다시 밟아보고싶다는 나의 제의가 수락되여 나는 그곳을 향해 평양을 떠나게 되였다.

신천은 벌방 한가운데 자리잡은 소도시로서 평양에서 서남쪽으로 80여키로메터 떨어져있다.

나는 달리는 차안에서 신천땅을 처음 밟아보던 때를 회상하였다.

피에 젖은 그때의 신천은 너무도 처참한 살풍경이였다.

신천강점 미군사령관은 고용병들을 내몰아 무고한 주민을 닥치는대로 쏘아죽이고 때려죽이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게 하였다.

신천땅은 문자그대로 피의 세례를 받지 않은곳이 없었다.

저녁노을도 원한을 품고 피빛으로 불타고있었다.

우리들은 몸서리치는 마음을 안고 원암리 밤나무골에 있는 화약창고자리에서 벌어졌던 참극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크지 않은 두개의 화약창고에는 수백명의 녀성들이 귀여운 아이들을 품에 안은채 갇혀있었다고 한다.

어느날 이곳을 돌아보던 미군사령관 해리슨은 노발대발하며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를 품에 안고있는것은 너무나도 행복하다.

따로따로 갈라놓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어머니를 찾는 아이들의 목갈린 소리, 아

이들을 부르는 어머니들의 피타는 웨침이 밤나무골을 들었다놓았다.

놈들은 그것도 성차지 않아 휘발유를 끼얹고 두개의 창고에 불을 질렀으며 나중에는 수류탄까지 던져넣었던것이다.

나의 가슴아픈 추억을 되살리며 차는 어느덧 신천땅에 이르렀다.

40년전 그날의 아픈 상처는 흔적도 찾아볼수 없었다.

나는 현대적살림집들이 들어찬 넓은 길을 따라 먼저 신천박물관으로 갔다.

많은 사진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고 진렬장에는 소름끼치는 증거물들이 놓여있었다.

먼곳에서 견학온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학생들이 붉은 넥타이를 드리우고 말없이 박물관을 돌아보고있었다.

자세히 읽어보고 유심히 들여다보는 그 어린 눈동자들에도 하나같이 미제에 대한 분노가 이글거리고있었다.

이윽하여 우리는 여러군데를 돌아보고 련꽃봉에 올랐다.

거기에 커다란 분묘 2개가 가지런히 놓여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400어머니묘와 102어린이묘이다.

우리의 곁에는 단정한 옷차림을 한 학생들이 서있었다.

그들은 격분에 넘쳐 눈물을 흘리며 저저마다 자기심정을 토로하는것이였다.

일본에 사는 조선동포들의 자녀들인데 방문차로 조국에 왔다고 통역이 귀띔해주었다.

나를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는 그들에게 어떻게 되여 내가 여기에 왔는가를 이야기하였더니 모두 반색하며 나를 에워싸고 1951년 봄에 알게 된 미제놈들의 만행을 이야기해달라고 하였다.

나는 별안간 목이 꽉 메였다.

그렇다, 나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

몇백, 몇천 마디를 대신할수 있는 사실자료들을 그들에게 말해주어 미제양키들의 죄행을 똑똑히 알게 해야 한다.

이것이 혁명가의 본분이다.

그런데 막상 말을 떼려고 하니 울분이 앞서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눈물이 글썽해있는것이 못내 이상스러웠던지 나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는것이였다.

외국할머니가 자기네 이상으로 흥분해하는것이 호기심을 자아낸 모양이였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말을 시작하였다.

《여러분, 나는 4 3년전에 국제녀맹조사단의 한 사람으로 조선에 왔던 꾸바녀성입니다.

그때 우리는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범죄적인 만행에 대하여 낱낱이 알아가지고 꾸바인민들과 세계인민들에게 폭로하였습니다.》

순간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박수를 치며 나에게 인사를 보냈다.

나는 흥분해있는 그들에게 신천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동하게 말해주었다.

벌써 녀학생들속에서는 흐느낌소리가 터지기 시작하였다.

나도 점점 격해지는 마음을 어쩌지 못하며 지난날 신천에서 나에게 토로하던 남녀로소들의 울부짖음을 그대로 이야기하였다.

아버지를 십자가에 못박아죽이고 어머니의 젖가슴을 도려낸 다음 어린 동생들과 함께 생매장해버렸다고 울부짖던 그 인민학교 녀학생!

어린아이를 태치듯 길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밸이 튀여나올 때까지 구두발로 짓뭉갰다는 녀인의 그 피타는 목소리!

나는 그때 신천인민들이 앉아 울분만 토한것이 아니라 미국승냥이놈들을 기어이 복수하겠다는 피의 맹세를 다진데 대하여, 놈들이 그 아무리 미쳐날뛴다고 하

여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령도가 있는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진데 대하여 말해주었다.

이야기하던 나도 목이 메였고 귀를 강구던 재일조선 학생들도 목놓아울었다.

나는 그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동무들. 울지 말고 머리를 드시오.

신천땅을 피로 물들인 미제가 지금 저 남녘땅에 둥지를 틀고있고 우리 꾸바의 관따나모에도 웅크리고있습니다.

양키 미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잔인한 인간도살자라고 하여 놈들을 무서워해서는 안됩니다.

미국놈들은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겁이 많은 놈들입니다.

동무들은 짐승중에 제일 큰 코끼리가 쥐를 무서워한다는것을 알고있을것입니다.

조선에는 자그마한 고슴도치가 호랑이를 이겼다는 옛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두 나라 인민은 반드시 공동의 원쑤 미제를 타승하고야말것입니다.》

그렇다. 미제는 물론 열, 백의 제국주의가 한꺼번에 달려든다고 해도 조선은 놈들을 단매에 쳐물리칠것이며 꾸바도 결코 놈들에게 굴복하지 않을것이다.

그 모범을 꾸바는 쁠라야 히론전투에서 보여주었으며 조선은 1950년대에 벌써 미제를 타승한데서 보여주었다.

있지도 않는 《핵무기개발》을 구실로 미제가 《팀스피리트 93》군사연습을 벌릴 때에도 조선은 자기의 존엄과 위력을 과시하여 다시한번 미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사실 그때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조선에서 제 2 의 이라크사태가 빚어지지 않겠는가고 몹시 우려하며 손에 땀을 쥐고 주시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원쑤들과의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속에서 백두의 담력과 50년대의 의지로 적들을 타파함으로써 결국 미제를 조미회담장에 제발로 걸어나오게 하였던것이다.

나는 번개처럼 머리속을 달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재일조선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나자신도 가슴에 새겼다.

(미제와의 싸움을 조선처럼 해야 하며 우리를 굶겨죽이려는 미제의 봉쇄정책앞에서는 꾸바처럼 견결하여야 한다.)

우리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꾸바를 봉쇄하려는 미국의 정책을 단호히 규탄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의 립장을 재확인하시였

으며 1959년 1월 1일에 승리한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지켜나갈것을 호소하시였다.

이에 호응하여 세계가 련대성을 표명하고있다.

꾸바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구라파에서까지도 1994년을 꾸바인민과의 련대성의 해로 선포하였다.

미제가 아무리 우리에 대하여 시비하고 헐뜯어도 피델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은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발전도상에 있는 자그마한 우리 나라에서는 문맹이 퇴치되고 무료교육,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으며 인민들이 국가의 혜택으로 실업을 모르는 행복을 누리고있다.

그런데 미제는 가소롭게도 우리 꾸바를 비평하며 말살해버리려 하고있다.

피델동지께서 정당하게 지적하고있는바와 같이 미국놈들은 마치도 그 누구를 나무에 매달고 목을 조이면서 숨을 내쉬지 않는다고 하는것처럼 뻔뻔스럽게도 우리 제도를 헐뜯고있다.

지금 전세계가 우리 꾸바에 련대성을 보내고있으며 꾸바를 반대하는 미제의 범죄적인 봉쇄를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우리 꾸바인민은 《사회주의냐, 죽음이냐, 우리는 승리할것이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미제와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다.

나는 조선에 와서, 특히 신천을 다시금 방문하고나서 미제와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되였다.

오늘 조선에서 신천박물관을 비롯한 미제의 만행자료를 폭로하는 시설을 곳곳에 꾸려놓고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것은 그들로 하여금 원쑤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우며 사회주의를 튼튼히 지켜나가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나는 오늘 조선인민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였을뿐아니라 특히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되여있기때문에 그 어떤 원쑤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다고 확신한다.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말은 조선인민의 신념으로 되고있으며 그들은 이러한 의지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만약 그 어떤 원쑤가 공화국을 해치려한다면 조선은 산악같이 일떠서서 반격을 가할것이며 적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을것이다.

자기를 건드리는자들에게는 무자비하고 벗들에게는 한없이 친근한 조선은 그 누구든지 권총을 들이대면 포를 내댈것이다.

조선은 이처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위력한 나라이다. 나는 이것을 조선방문과정에 똑똑히 느끼였다.

10. 얼음장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

마가을날에 조선에 왔는가 했는데 어느새 겨울도 깊어가고 이 해도 다 저물어가고있다.

나는 그새 조선의 많은곳을 다녀봤고 많은 부문을 참관하였으며 훌륭한것을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였다.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린 사적지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정치기관들, 자립적민족경제로선을 힘있게 관철하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장과 련합기업소들, 당의 문예정책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문학예술부문들, 병원, 학교, 유치원 등 조선의 참모습을 볼수 있는 여러곳을 수없이 다녀보면서 강렬하게 느낀것은 조선인민들이 나라가 분렬되고 민족이 둘로 갈라져 비분을 금치 못해하는 감정이였으며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절절한 념원이였다.

통일!

이것은 오늘 조선인민이라면 그 누구나를 불문하고 자나깨나 념원하며 성취하려는 민족최대의 과업으로서 하나의 시대적조류이고 막을수 없는 자주의 물결이다.

통일을 바라지 않고 방해하는 놈은 오로지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한짝이 되여 핵전쟁연습을 벌리며 북남대

결을 조장하고있는 김영삼을 두목으로 하는 몇몇 안되는 남조선괴뢰도당뿐이다.

남조선괴뢰들은 외세의 사촉밑에 있지도 않는 북의 《핵개발의혹》을 걸고 그 무슨 《군사적대응불사》니, 《만단의 준비태세확립》이니 하는 호전적폭언을 련발하고있다.

김영삼일당은 최근 북의 《심상치 않은 군사적동향》이요 뭐요 하면서 괴뢰군 전체 무력을 《비상경계태세》에 진입시킨 가운데 450여만명에 달하는 방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독수리 93》핵전쟁연습과 《화랑》전쟁연습을 벌려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파쑈도당은 한편으로 《제재》니, 《국제적공조체제》니 하면서 국제무대를 싸다니며 외세의 힘을 빌어 자기 동족을 해치기 위한 반민족적인 구걸외교에도 열을 올리고있다.

나는 조선에 와서 신문과 방송보도를 통하여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망동을 똑똑히 알고 꾸바사람으로서 분격을 금할수 없었다.

남조선괴뢰당국의 그 언동은 외세와 야합하여 끝끝내 동족상쟁의 내란을 터쳐 조선민족을 핵참화속에 빠뜨리는것도 서슴지 않으려는 범죄적기도의 발로라는것이 누구에게나 뻔하기때문이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판문점과 개성지구 특히 나라

의 허리를 동강내며 가로질러간 240키로메터의 콩크리트장벽을 돌아보면서 똑똑히 깨달았다.

나는 신천을 떠나 판문점에 도착하였다.

판문점입구에 나와있던 인민군군인들이 나를 열렬히 환영해주었다.

이들은 모두 이곳 판문점을 지키고있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이였다.

나는 곧 커다란 조선지도와 남조선에 전개한 핵무기배치도가 걸려있는곳으로 안내되였다.

나를 안내하는 군관동무는 조선지도를 가리키며 조선의 지리적위치와 면적, 인구에 대하여, 동서로 뻗은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북남이 분렬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면적이 22만평방키로메터인 조선은 1945년 미군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분렬되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나도 이미 잘 알고있는 문제였지만 안내군관의 해설을 들으며 더 많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였다.

사실 미국은 《분렬하여 통치하라》는 후안무치한 식민주의교리를 조작하고 세계도처에서 남의 령토와 민족에 대한 야수적인 인공적분렬만행을 저질러왔다.

국토의 분단은 민족내부의 혁명세력과 반동세력, 애국세력과 매국세력이 대치하게 되는 결과를 빚어냈으

며 결국 침략자에게는 발붙일 지반이 마련되게 하였다.

민족분렬로 인하여 제국주의자들은 무제한한 식민지적지배와 략탈적치부를 할수 있었고 분렬된 민족은 뼈아픈 고통과 희생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악성적인 민족분렬광신병에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 불우한 인민들속에는 조선의 남반부인민들도 들어있다.

미국의 견지에서 본다면 남조선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교차점에 놓여있는 신묘한 반도로서 《세계지정학적인력의 중심지》, 아세아대륙에로 뚫고들어가는 교두보로 된다.

《미국은 세계를 제패하려 하고있다.》이것은 꼴롬비아의 해방자 씨몬 볼리바르가 한 말이다.

그가 정당하게 지적한것처럼 미국의 야망은 끝이 없다.

오늘 그 촉수가 조선에 뻗치고있다. 바로 이런데로부터 미국은 태평양세력권유지를 위해 하나의 조선민족, 단군을 시조로 하여 유래되고 번성해온 5천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단일민족이 둘로 갈라져야 한다는 강도적인 론리를 고안성립하였던것이다.

쏘, 미, 영 련합군에 미리 가담한것을 조건으로 일본군벌의 패망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악용하여 미군은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조선분단계획을 성취하였다. 미국은 처음부터 그 분렬상태를 영구화하자고 계획한 것은 물론 아니였다.

그들의 시초음모는 일단 분렬상태를 눌러놓고 지속시키면서 기회를 노려 조선의 전령토를 식민지로 재통합시키려는것이였다.

그런데 1953년에 저들의 침략전쟁이 패하게 되자 미국은 남조선만이라도 깔고앉아 핵전쟁을 자기 땅에서가 아니라 중간지대로 국한시키고 미국본토를 핵타격권에서 보호하려고 획책했었다.

그러한 중간지대를 《함부로 손댈수 없는》 구라파나 《상처없이 확보》해야 할 원유산지인 중동보다 핵사용에서 파괴되여도 잃을것이 없는 극동에서 찾게 되였다.

결국 그곳은 남조선으로 락착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핵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면 북조선을 비롯한 사회주의력량을 가까운 거리에서 효과있게 선제타격할수 있다고 타산하였다.

그리고 미국본토는 1차타격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다고 보았다.

미국은 지난 시기 우리 꾸바를 교살하기 위한 쁠라야 히론전투를 비롯하여 140여차의 침략전쟁을 일으켰지만 그 모두가 미국밖에서 벌어졌고 본토에는 단 한

발의 폭탄도 떨어져본적이 없었다.

자기를 위해 조선땅을 희생시킬 바로 이 흉심을 품은 미국이였다. 하기에 조선전체를 먹지 못할바에는 남조선만이라도 영구히 틀어쥐자는것이 마지막 투전장이였다. 그 투전장이 다름아닌 《두개 조선》책략이였다.

미국은 1969년 괌도선언에서 《분단주의현상유지》를 《닉슨주의》의 주요내용의 하나로 선포한후 조선에서도 분단상태를 고착시키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것을 다시한번 대조선정책으로 들고나왔다.

이 책략에는 북조선보다 《우세》를 차지한 다음에야 《통일》을 하겠다는 남조선괴뢰들의 야심도 들어있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낮잠만 자고있는것이 아니였다. 그러고보면 남조선괴뢰들이 언제가도 북조선보다 《우세》할수 없다. 결국 그들이 꿈꾸는 《통일》은 영원히 할수 없다는 《결론》이 흘러나오는것이 아닌가.

미국의 책략대로 놔둔다면 분렬로 인한 지금까지의 고통만 해도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른 조선민족은 앞으로 영원히 그 고통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민족의 첫 조상인 단군으로부터 5천년동안 하나의

피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전통을 이어온 단일민족으로 화목하게 살아오던 조선이 서로 완전히 다른 국호를 가진 두개의 남아닌 남의 나라로 갈라지고 군사분계선이 국경선으로 변해버린다는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수 없다.

민족내부의 모순된 리익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일인데 미국의 리익을 위해서 그런 비참한 전민족적희생을 강요당해야 한다는것은 그야말로 절통한 일이 아닐수 없다.

나는 우리 꾸바의 관따나모에 둥지를 틀고앉아 주인노릇을 할뿐아니라 그곳을 거점으로 꾸바전역을 저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별의별 권모술수와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는 미국에 대한 증오가 함께 타끓어올라 격분을 참을수 없었다.

미국이 아무리 《두개 조선》안을 성사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날뛰여도 결코 저들의 뜻대로는 안될것이다.

지금은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이등박문의 으름장 몇마디로 온 조선을 통채로 삼킬수 있었던 때가 아니다. 오늘날 조선에 대고 삿대질하거나 부질없는 행위를 하는것은 결국 저들의 무덤을 제손으로 파는 격으로 되고말것이다.

나는 벽에 걸린 미군의 남조선핵무기배치도를 바라보면서 미군이 아직 조선전쟁 때 그렇게 얻어맞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며 《푸에블로》호사건과 《판문점사건》때 그렇게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도 교훈을 찾지 못한것은 가소로운 일이라고 단정하였다.

미군이 아무리 천여개의 핵무기를 남조선전역에 배치하고 북조선을 《선제타격》할 꿍꿍이를 벌려놓아도 조선인민은 끔쩍하지 않을것이다.

만약 놈들이 무분별하게 달려든다면 1962년 10월 위기 때 꾸바인민이 미군을 단매에 쳐물리친것처럼 일격에 소탕해버릴것이라는 확신이 나의 가슴에 차고넘쳤다.

나는 여기서 구체적인 해설을 다 들은 다음 다시 차를 타고 한 5분간 달려 정전협정조인장으로 갔다.

조인장가운데는 긴 책상이 놓여있었는데 그 한복판에는 조선인민앞에 패배를 인정한 미군장성 클라크가 서명한 조선정전협정문이 놓여있었다.

나는 다시 차를 타고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판문점에 도착하였다.

회의실안에 있는 긴 책상 한복판으로 선이 가로질러 있었다.

안내군관은 그것이 바로 조선을 북과 남으로 가르는 군사분계선이라고 설명해주었다.

순간 나는 전류에 닿은 사람처럼 마음이 찌르르해지는것을 느꼈다.

한지붕, 한방안에도 남북의 《장벽》이 가로놓여있기 때문이였다.

폭이 4키로메터나 되고 총 연장길이가 240키로메터인 비무장지대의 한복판에 있는 이 작은 집도 두쪼각으로 나뉘여져있으니 조선인민의 아픔과 고통을 그 무엇에 비기랴.

나는 하루빨리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따라 조선을 통일함으로써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선인민의 모든 고통과 원한을 깨끗이 가셔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지금 조성된 정세는 전체 조선인민앞에 전민족의 대단결로 나라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느냐 아니면 동족끼리 싸워 민족의 자멸을 가져오느냐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있다고 본다.

바로 위대한 주석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이러한 사태하에서 7천만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닥쳐오는 민족적재난을 막고 자주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할수 있는 유일무이한 실천적방도를 가르쳐주고있다.

주석동지께서는 10대강령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전체 조선민족이 단결하여야 분렬주의자들의 반민

족, 반통일 책동을 짓부셔버릴수 있으며 민족분단의 장벽도 허물어버릴수 있다.

조선인민은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리익과 안녕, 통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전체 조선인민이 살길, 민족공동의 번영의 길은 바로 전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을 통일하는 바로 그 길에 있다고 확신한다.

전체 조선인민은 조성된 오늘의 엄혹한 정세속에서 미국이 강요한 핵전쟁위험에 전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

민족이 없고 나라가 재더미로 된 다음에야 사상과 제도, 정견과 리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7천만 조선인민들이 누구나 다 북과 남이 대결하면 어부지리를 얻을것은 외세뿐이고 피해를 당할것은 조선민족뿐이라는것을 명명백백히 인식하고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싸워나가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위대한 주석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참으로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사람이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하나로 굳게 뭉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민족의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민족단합의 위대한 기치이며 90년대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다.

오늘 위대한 주석동지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뿐아니라 세계 수억만 진보적인민들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기 위한 위대한 강령》,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김일성동지의 심오한 사색과 민족에 대한 숭고한 사랑의 결정체》,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념원을 반영한 매우 정당한 강령》,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령도력과 포용력을 반영하고있는 강령》

나는 이런 세계적인 반향을 되새겨보며 퍽 유쾌해진 마음에 가벼운 걸음으로 판문각을 떠나 개성으로 향했다.

개성은 918년부터 1392년사이에 조선의 첫 통일국가로 있던 고려의 수도였다.

당시 개경이라고 불리운 이 도시는 아직도 옛 자취를 력력히 찾아볼수 있게 하는 성벽과 력사유물들이 적지 않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국비행기의 무차별폭격으로 이 도시도 재더미신세를 면치 못했으나 김일성주석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김정일비서동지의

옳바른 시책으로 하여 오늘 개성은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잘 결합하여 옛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훌륭히 건설되였다.

나는 자남산호텔에서 잠시 휴식하고 안내원들과 함께 원한의 콩크리트장벽을 보러 떠났다.

승용차로 한 40분가량 달려 우리는 콩크리트장벽이 지척에 바라보이는곳에서 차를 멈추었다.

(나라의 허리를 동강내며 분계선이 지나간것만도 가슴아픈데 국경을 쌓듯 저렇게 240키로메터나 되는 포대를 이어놓다니…)

나는 여기서 콩크리트장벽에 대해서는 구태여 길게 늘여놓고싶지 않다. 하지만 이 콩크리트장벽이야말로 누가 통일을 바라고 누가 분렬을 고취하는가, 누가 민족의 분단을 진실로 가슴아파하고 누가 외면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력사의 증견자이며 남조선당국자들의 취약성과 매국배족행위를 온 세상에 스스로 드러내놓은 증거물이라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강조하게 된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마치도 통일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민족분렬의 고통과 리산가족의 아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는듯이 입버릇처럼 주절대고 미화분식하여도 그것은 하나의 정치적기만이며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저 콩크리트장벽이 그 술책을 웅변적으로 보여

주는 력사의 심판대이다.

나는 망원경으로 한참동안이나 콩크리트장벽을 둘러보고나서 울분에 찬 가슴에 바위처럼 굳어지는 마음으로 함께 온 동료들에게 이렇게 부르짖었다.

《바로 여기에서 지척인 남조선도 한나라 땅이고 한민족인데 이렇게 서로 갈라져 살아야 하니 조선인민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꾸바와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들이지만 힘을 합쳐 굳게 뭉쳐 싸우면 외세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할수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은 꾸바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피델 까스뜨로동지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동지, 천변만화의 지략을 지니신 강철의 령장 김정일비서동지를 모시고있고 이분들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으므로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령도를 받고있으므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래일도 승리할것입니다.

나는 귀국하면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힘자라는껏 련대성운동을 벌려나가겠습니다.》

안내원도 통역원도 나와 같은 심정인듯 나의 손목을 덥싸쥐고 힘껏 흔들어보였다.

나는 바다처럼 설레이는 그들의 마음에 합류되여 얼싸안고 볼을 비비였다. 심장과 심장의 박동이 하나로

울리듯 꼭같이 두근거렸다.

어디선가 시내물소리가 돌돌 들려왔다.

여러갈래의 작은 내물이 얼음장밑을 헤치고 뚫고나와 여울목에서 합쳐지며 제법 소리를 내고있었다. 순간 번개치듯 나의 뇌리에 강한 충격을 주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제국주의 황색구름으로 온 지구를 덮으려고 해도 얼음장밑에서 강물이 흐르고 북빙양의 얼음산밑에서 바다물이 설레이는것처럼 자주의 물결, 통일을 향해가는 대단결의 물결은 결코 막을수도 덮을수도 없다는 그 진리였다.

11. 높은 칭호, 고귀한 이름

(내가 이번 조선방문기간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동지의 접견을 받는 영광을 또다시 지닐수 있을가！？)

이 생각은 꾸바주재 조선대사가 나에게 조선방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부터 가슴속에서 내려가지 않던 애틋한 마음이였다.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그이께 삼가 올릴 선물도 정성껏 준비하여가지고 떠났었다.

그런데 평양에 도착한 다음날 나는 나의 지성을 담은 선물을 해당일군에게 전달하게 되여 이번에는 위대한 주석동지를 만나뵐수 없게 되였구나 하는 생각이 앞서 섭섭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던 1993년 11월 4일 저녁 나를 찾아온 녀성일군이 흥분된 얼굴로 래일 오전에 주석께서 나를 친히 만나주겠다고 하시였다는것이였다.

순간 나는 온 몸이 후더워지며 심장의 박동이 높아지는것을 느꼈다.

나는 도무지 그 소식이 믿어지지 않아 《방금 나에게 한 말이 사실입니까？》라고 따지듯 그 녀성일군에게 물었다.

그는 웃으며 사실이라고 찍어말하였다.

그래서야 나는 내 앞에 어떤 커다란 영광이 차례졌는가를 인정하게 되였다.

이날밤 나는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여러갈래의 생각들이 엇갈리며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수 없게 하였다.

그중에서도 나의 마음을 후덥게 하며 강렬히 떠오른 생각은 1951년 5월 7일에 있었던 일이였다.

이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매우 분망한 시간을 보내고계시였지만 우리 국제민주녀맹조사단일행을 모두 집무실로 불러주시고 사업성과를 축하해주시였다.

젊음과 지략이 넘치는 안광에 환한 미소를 함뿍 담으시고 우리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던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나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나어린 처녀의 몸으로 꾸바에서 왔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매우 반가와하시며 나의 손을 꼭 잡으신채 오래동안 흔들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수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동무들, 꾸바가 얼마나 먼곳에 있는 나라인지 아오?》**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나의 손목을 꼭 그러쥐시였다.

나는 이때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그 무엇이 확 안겨와 가슴이 짜릿하였다.

이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신들이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을 통하여 체험한 조선전쟁의 진상과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전세계 사회여론에 알려준다면 우리는 그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할것입니다.

…

조선은 반드시 자유로운 독립국가로 될것입니다.

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될수 없으며 또 어느때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것입니다.》

나는 그이의 말씀 마디마디를 심장속깊이 간직하면서 이 땅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모든것을 사실그대로 꾸바인민과 라틴아메리카인민들에게 전달하리라 굳게 마음먹었다.

꾸바로 돌아온후 나는 조선인민이 당하고있는 고통에 대하여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조선의 평화적주민들에게 가하는 미제의 만행에 대하여 폭로하였다.

이와 함께 침해당한 자기의 자주권과 조국을 위하여 정당하게 투쟁하는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파병하지 말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꾸바민주녀성동맹에서는 내가 쓴 책《내가 본 조선》을 출판배포하게 하였다.

꾸바인민은 조선에 대한 파병을 단호히 반대하여 떨쳐나섰다.

조선전쟁에 자기 나라의 군대를 보내지 말라!

이것이 평화를 사랑하는 꾸바인민들이 자유와 독립을 지켜싸우는 전세계인민들에게 보내는 전투적인 호소였다.

내가 조선을 위해 한 일이란 이처럼 특별한것이 없었다. 다만 아름다운 조선을 피로 물들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것을 하였을뿐이다.

나는 오히려 첫 접견을 통하여 내삶의 첫 시작을 참되게 떼도록 하여주시고 나를 혁명가로, 공산주의자로 자라날수 있게 혁명적세계관을 심어주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것이였었다.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잠못이루고있는데 시계는 벌써 새 날을 가리키고있었다.

(의례적인 관례도 전혀 모르는 내가 이제 그이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는지…)

이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며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러나 나의 이 모든 걱정은 김일성주석동지를 만나뵙는 순간부터 말끔히 사라져버렸다.

그이께서는 내가 인사를 올리자 다정히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몸은 건강한가, 불편한 점은 없는가고 따뜻이 물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나를 여겨보시며 《우리 다같이 늙었구만…》라고 하시면서 나를 뜨겁게 포옹하여주시였다.

나는 끝내 격정을 터치고야말았다.

늙었다는 설음에서가 아니라 그이의 안광속에, 그 어조속에, 그 손길에 넘치는 자애롭고 따사로우며 인자하신 친어버이사랑이 가슴속에 맥맥히 흘러들었기때문이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나에게 자리를 권하시고나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물으시기도 하고 나의 대답을 귀담아 들어주시며 쾌히 긍정도 해주시였다.

나는 긴장했던 온 몸이 점점 풀리며 마치 오랜 지기를 만난듯한 기분에 휩싸여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였다.

우리 주위에는 조선주재 꾸바대사 후안 호쎄 레온을 비롯한 많은 수행원들이 빙 둘러있었지만 그이께서는 나와 단 둘이 있는것처럼 나한테만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나에게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고 1986년에 조선을 방문하였던 까를로스 라파엘동무에 대하여서도 친절히 물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나에게 담배도 권하시였다.

나는 송구스러워 몸둘바를 몰랐으나 그이께서 같은 전우끼리 만났는데 뭘 그러느냐고 다심히 말씀하시며

자꾸 권하시기에 담배도 함께 피웠다.

이때 4번씩이나 나를 전우라고 불러주시였는데 나는 이 뜨거운 말씀을 평생을 두고 잊지 않을것이며 잊을수도 없다.

김일성주석동지께서는 나의 사업과 생활에서 간직하여야 할 귀중한 말씀을 주시고나서 기념사진도 함께 찍자고 손잡아 이끄시였다.

나는 다심한 어버이곁에서 잠시라도 떨어질세라 저어하는 아이처럼 그이의 손을 꼭 잡고 줄곧 놓을줄 몰랐다.

김일성주석동지께서는 나를 위해 친히 오찬도 마련하시고 손수 맛있는 음식까지 내앞에 놓아주시며 축배까지 들어주시였다.

나는 축배잔을 두손으로 받쳐들고 그이를 우러르며 마음속깊이 맹세다졌다.

(전우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신 김일성주석의 그 하늘같은 신임에 보답하기 위하여 한생을 조선의 딸답게 살겠습니다.)

이 맹세를 실천하기도 전에 나는 또다시 꿈같은 영광을 받아안게 되였다.

나의 방문 마지막시기 주석동지께서는 다시금 나를 자신의 곁으로 불러주시였다.

나는 행복에 행복이 겹친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어도

막상 내가 당하고보니 꿈이 아닌가싶어 어리둥절해졌다.

(나의 인생황혼기에 이런 영광이 또 차례진단말인가!?)

나는 자문자답하며 주석동지께서 기다리시는곳에 도착하였다.

거기에는 주석동지와 세명의 녀성들이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두사람은 내가 이미 알고있는 항일녀투사들이였고 다른 한사람은 처음보는 녀성동무였다.

주석동지께서는 그를 나에게 소개하시면서 18살때부터 유격대원으로 투쟁하였으며 지금은 조선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하고있는 동무라고 일러주시였다.

이 접견은 매우 친근하고 가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된것으로서 나의 마음을 몹시 설레게 하였다.

의례적인 담화도 작별담화도 아니였다.

나를 항일투사들급에 올려세워 진심을 터놓게 하는 형제들의 이야기모임과도 같은것이였다.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함께 싸운 로투사들과 한자리에 앉혀주시고 나를 대견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주석동지의 부드러운 음성, 만면에 환한 웃음속에서 나는 끝없는 행복을 느끼며 울고싶어졌다.

(심장이여 제발 진정해다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팽팽해질대로 팽팽해진 마음이여서 다치기만 해도 가슴이 그대로 터질것만 같았다.

그 시각은 드디여 오고야말았다.

위대한 주석동지께서는 나의 손목을 다정히 잡아 이끄시더니 자신의 존함이 모셔져있는 가장 고귀하고 값있는 기념품을 친히 안겨주시였다.

이 시각부터 나의 심장의 고동은 초침과 함께 그이의 맥박, 그이의 숨결에 맞춰 높뛰는듯 싶었다.

격정을 터치며 어깨를 떠는 나를 잠시 바라보시던 주석동지께서는 나의 등을 다정히 다독여주시고나서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조선은 꾸바가 보내는 련대성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당신은 우리 조국이 시련을 겪고있을 때 미제를 단죄하며 조선전쟁에 꾸바군대를 보내지 못하게 한 첫 사람이였다고 분에 넘치는 평가를 주시는 것이였다.

그러시고는 피델동지는 미국의 《푸에블로》호간첩선이 조선인민군대에게 나포되였을 때 그 진상을 정당하게 밝히고 미국의 침략정책에 대하여 까밝히도록 하였다고, 꾸바의 아바나방송을 통하여 미국의 간첩행위를 인정하는 《푸에블로》호 함장의 성명을 내여보냄으로써 전세계인민들에게 똑똑한 인식을 주게 하였다고, 꾸바

는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조선인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그이를 우러르며 숭엄한 생각에 잠겼다.

불쑥 호쎄 마르띠의 명언이 떠올랐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사람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그이께서는 말을 못하고 우두커니 서있는 나의 심정을 헤아리신듯 미소를 머금으시고 새해를 맞으며 진행되는 어린이들의 설맞이공연에 나를 다시금 초청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기쁨에 기쁨이 겹치고 행복에 행복이 더해진다고 위대한 주석동지께서는 인간의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사랑의 절정에, 인간의 감사가 가닿지 못하는 은혜의 봉우리우에 나를 높이 올려세워주시는것이였다.

나는 그 령마루에 올라서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동지를 두고 력사앞에, 세계앞에, 인류앞에 이렇게 웨치고 싶다.

《그이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12. 나무는 서서 죽는다

우리 집 뜨락에는 이따금 한번씩 꽃이 피는 늙은 알맨드라나무가 서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자신도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알맨드라처럼 고목화되여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서글픈 생각을 어쩌지 못하군 하였다.

그런데 이번 조선방문과정에 많은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고목인 나에게도 알맨드라처럼 꽃이 피게 되였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구새먹은 고목처럼 시들어가던 내 인생에 젊음을 주고 활력을 부어주어 생신한 삶으로 꽃피워주신분은 다름아닌 김일성주석동지와 김정일비서동지이시다.

나의 친지들도 나를 극상해야 년금에 매달려있는 늙은 법률가로 치부하면서 혁명에 유익한 일을 하기에는 기력이 빠지고 지혜가 메마른 도태대상으로, 성쌓고 남은 돌과 같은 존재로 여길뿐이였다.

이럴 때 김일성주석동지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친히 초청하시였을뿐아니라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안겨주시며 투사의 대렬에 세워주셨으니 내 삶이 어찌 꽃펴나지 않을수 있겠는가.

이번에 위대한 주석동지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두

차례에 걸친 접견과 배려를 두고 주조 우리 꾸바대사관 일군들은 신임중의 신임이고 사랑중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꾸바인민에 대한 그이의 높은 신뢰의 표시라고 흥분해마지 않았다.

나는 지난 11월 5일 위대한 주석동지를 만나뵈운 자리에서 그 신임과 사랑에 보답할 한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올리였다.

《이전에 제가 미제의 만행을 폭로하는 자그마한 소책자를 하나 썼지만 이번에는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승리에 대하여, 경제, 문화, 교육, 보건 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를 소개하는 책을 또 하나 쓰겠습니다.》

주석동지께서는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적극 지지하여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집필조건도 잘 마련해주어야겠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나이가 나이니만치 몸관리를 잘해야 한다시며 우선 충분히 휴식하고 글을 써야 하겠다고 따뜻이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나는 며칠동안 아름답고 조용한 신천휴양지에서 휴식하게 되였다. 수림속 휴양지의 수천척 땅속에서 솟구쳐오르는 뜨거운 온천물에 몸을 잠그고 며칠동안의 일을 되새겨보느라니 지상천국에 올라가 이 생을 더 사는듯한 느낌이였다.

주석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받고보니 조선전쟁당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그이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던 일이 삼삼히 떠올랐다.

나는 이 사진들을 우리 집의 가보로서 영원히 보존하며 제일 좋은곳에 모시고 위대한 주석동지께서 전우라고 불러주신 그 고귀한 이름을 빛내이리라고 굳게 결심하였다.

이런 즐겁고 행복한 순간과 나날이 왜 그리도 빨리 지나가는지… 이런 아쉬운 생각으로 들떠있던 어느날이였다.

나는 또다시 뜻밖의 감격을 받아안게 되였다.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이 숙소에 찾아와 친애하는 김정일비서동지께서 친히 보내주시는 선물을 정중히 전달해주는것이였다.

정성껏 포장한 선물함에는 외투, 솜옷, 내의, 신발을 비롯한 모든 필수품이 일식으로 갖추어져있었다.

나는 이 소중한 하나하나를 정히 만져보며 다시금 목이 메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비서동지의 다심한 사랑과 은정이 나의 손을 거쳐 뇌수에, 심장에, 온 몸에 전류처럼 흘러퍼졌다.

더운 나라에서 사는 나는 조선의 겨울날씨를 미처 예견하지도 못했고 이렇게 오래동안 체류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여 겨울옷준비를 하지 못하였다.

김정일비서동지께서는 이 모든것을 다 헤아려보시고 내가 홑옷을 입고 추워할세라 이런 옷을 손수 장만하여 보내주셨으니 그 감격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사실 나는 제국주의자들앞에서는 절대로 떨지 않았지만 추위라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다.

남방사람인 나의 이 특징까지 료해하신 그이께서 이 많은 선물을 보내주셨으니 정말 고맙기 그지없었다.

퍼그나 시간이 흘러 찾아왔던 조선동지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도 나는 선물앞에서 떠날줄 몰랐다. 황혼이 깃들어 방안이 어두워졌어도 나는 전등을 켤 생각을 못했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은 흥분속에 여러갈래의 생각과 추억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중에서도 만수대의사당에서 있었던 일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떠올랐다.

1993년 11월 11일 나는 오전에 현대적으로 꾸려진 평양산원을 참관하고 오후에 만수대의사당으로 갔다. 건축예술의 극치를 자랑하듯 그 웅자를 빛내이며 거연히 솟아오른 만수대의사당은 들어서자부터 마음을 숭엄하게 하고 걷잡을수 없게 하는 대회의장이였다.

내가 한 소회의실에 들어서자 거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주권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의 책임

적인 일군들이 나와있었고 우리 꾸바대사관일군들도 정중한 자세로 서있었다.

이윽하여 80고령의 공화국 부주석동지가 정령을 읽고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배려로 나에게 친선훈장 제1급을 수여한다고 발표하였다.

나는 처음엔 나의 귀를 의심하였다. 내가 무슨 큰일을 했다고 조선의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닌단말인가!

친선훈장 제1급으로 말하면 조선을 위하여, 국제주의적 친선과 단결을 위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운 다른 나라 인사들에게만 수여하게 되여있는 가장 영예로운 훈장이였다.

(그런 훈장이 나에게…!?)

나는 너무도 긴장된 나머지 숨을 죽인채 꼿꼿이 서있기만 하였다.

이윽하여 부주석동지가 나의 목에 훈장을 걸어주었을 때에야 정신이 들며 이 영광이 꿈이 아니였음을 깨달았다.

나는 무어라고 말할수 없는 감격에 젖어 한동안 말을 못하고 위대한 김일성주석동지의 초상화를 우러르고만 있었다.

나는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김일성주석동지께와 김정일비서동지께 분에 넘치는 훈장을 배려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주석동지께서는 제가 조선을 다시 방문할수 있도록 배려하여주신것만 해도 과분한데 저를 친절히 만나주시고 〈나의 전우〉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였으며 오늘 또다시 친선훈장 제1급을 수여받는 영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주는 훈장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조선전쟁에 단 한명의 군대도 보내지 못하도록 투쟁한 저와 우리 꾸바인민들에게 주는 훈장으로 알고 받겠습니다.》

순간 박수갈채가 요란히 울리였다.

나는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가슴이 후련해지며 심장속에 간직했던 결의가 그대로 쏟아져나왔다.

《경애하는 주석동지와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이 세상에서 사회주의기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시는 위대한 수령들이십니다.

나는 전세계에서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조선의 통일과 사회주의승리를 위하여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성주석동지께와 김정일비서동지께 저의 감사와

경의를 꼭 전해줄것을 부탁합니다.》

제가 받아안은 영광을 몹시 격동된 심정으로 바라보고있던 조선주재 우리 꾸바대사관 정치참사 미겔 뿌엔떼스동지는 눈물이 글썽하여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꾸바법률가 깐델라리아 로드리게스에게 친선훈장 제1급을 수여하는 배려를 돌려주신데 대하여 전체 꾸바대사관 성원들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꾸바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영광입니다.

깐델라리아 로드리게스선생을 비롯한 전체 꾸바인민들은 앞으로도 위대한 김일성주석동지와 피델 까스뜨로동지 사이에 맺어진 특별한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두나라 사이의 친선관계가 더욱 공고화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날 숙소에 돌아와서도 친선훈장 제1급과 증서, 략장 등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오래도록 서성거리였다.

이 모든 사랑과 배려는 나를 낳은 부모들도 주지 못했고 함께 자라난 나의 형제들도 주지 못한 친혈육의 정이여서 가슴속에 맺혔던것이 눈석이를 만난듯 녹아내려 진한 눈물로 줄줄히 흘러내리였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 나를 돌봐줄수 없었고 꾸바혁명에 참가한 맏이와 셋째오빠도

사망하여 나와 정을 나눌수 없었다. 게다가 세명의 언니와 녀동생은 남편을 따라 외국으로 떠난후 아직까지 생사여부조차 알리지 않고있으니 그들과 무슨 정이 있겠는가.

우리의 탁월한 수령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배려속에서 고독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아온 나는 이번 또다시 위대한 김일성주석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비서동지의 사랑과 은덕으로 생의 새로운 활력을 받아안게 되였다.

나는 속다짐하였다.

(나는 언제나 그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않고 나의 제2조국인 조선을 위하여, 조선과 꾸바의 친선단결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가리라.)

나는 우리의 피델 까스뜨로동지와 나를 전우라고 불러주시며 투사의 대렬에 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동지께 그리고 친애하는 김정일비서동지께 충성다하는 길에서 고목이 아니라 거목으로 자랄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 책을 썼으며 앞으로도 쓰고 또 쓸것이다.

나무가 서서 죽는것처럼 나도 내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어떤 역경속에서 굽히지도 꺾이지도 않는 조선의 리인모처럼 굳세고 깨끗하게 살겠다.

나는 정의의 필봉을 높이 들고 우리 집을 뒤덮고있는 알맨드라나무처럼 혁명의 억센 가지와 무성한 잎이 에스빠냐어를 쓰고있는 인민들, 세계 진보적인민들을 뒤덮을수 있게 모든 힘을 다할것이다.

저자의 략력

1928년 10월 23일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출생
1949년 아바나대학 법학부 졸업
《리카르드·도로스·아랑고》국가상 수여받음
1951년 조선전쟁에서 미제가 감행한 만행을 조사하는 국제민주녀성동맹의 한 성원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첫방문, 저서 《내가 본 조선》에서 이를 폭로, 규탄
196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두번째로 방문
199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번째로 방문
1993년 11월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배려로 《국제친선훈장》제 1 급을 수여받음

40년만에 다시 본 조선

저 자 깐델라리아 로드리게스 에르난데스
발행소 구 월 서 방
東京都文京区白山 4 - 33 - 14
電話 東京03(3813)9661(代)
발행일 1 9 9 4 년 6 월 5 일

